

## 湖南 少論의 根據地 茅山村 研究\*

- 文化柳氏 柳壽垣 家系를 中心으로 -

김승대\*\*

1. 머리말
2. 모산촌 입향과 기축옥사
3. 유준의 분비재 강화 활동
4. 유상운의 영팔정 중수
5. 나주괘서사건과 모산촌의 쇠락
6. 맺음말

### ■ 국문요약

이 글은 호남 소론의 근거지이자 호남실학의 또다른 산실로서의 영암 모산촌에 대한 기초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쓰게 되었다. 조선후기 중상주의 실학의 선구인 농암 유수원을 배출한 토대가 된 모산촌은 문화유씨 중시조인 하정 유관과 아들 유맹문으로부터 비롯되어 유맹문의 현손인 유용공과 유용강이 입향하면서 집성촌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기축옥사로 가문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명문가 반남박씨와 연혼 등을 통해 중앙에 진출하며 성장하였다. 유수원의 고조인 유준은 분비재 강화활동을 통해 가문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팔정을 중수한 유상운과 그의 아들 유봉휘대에는 호남 소론의 중심 근거지이자, 가문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유봉휘가 역적으로 죽고, 1755년 나주괘서사건과 깊이 연루되면서 모산촌은 쇠락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문의 후예인 농암 유수원은 처형

\* 이 연구는 2018년도 (사)인문학문화포럼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 ksd5000@hanmail.net

되었고, 사위인 원교 이광사는 유배되었다.

**주제어** : 모산촌, 문화유씨, 소론, 유수원, 유준, 유상운, 이광사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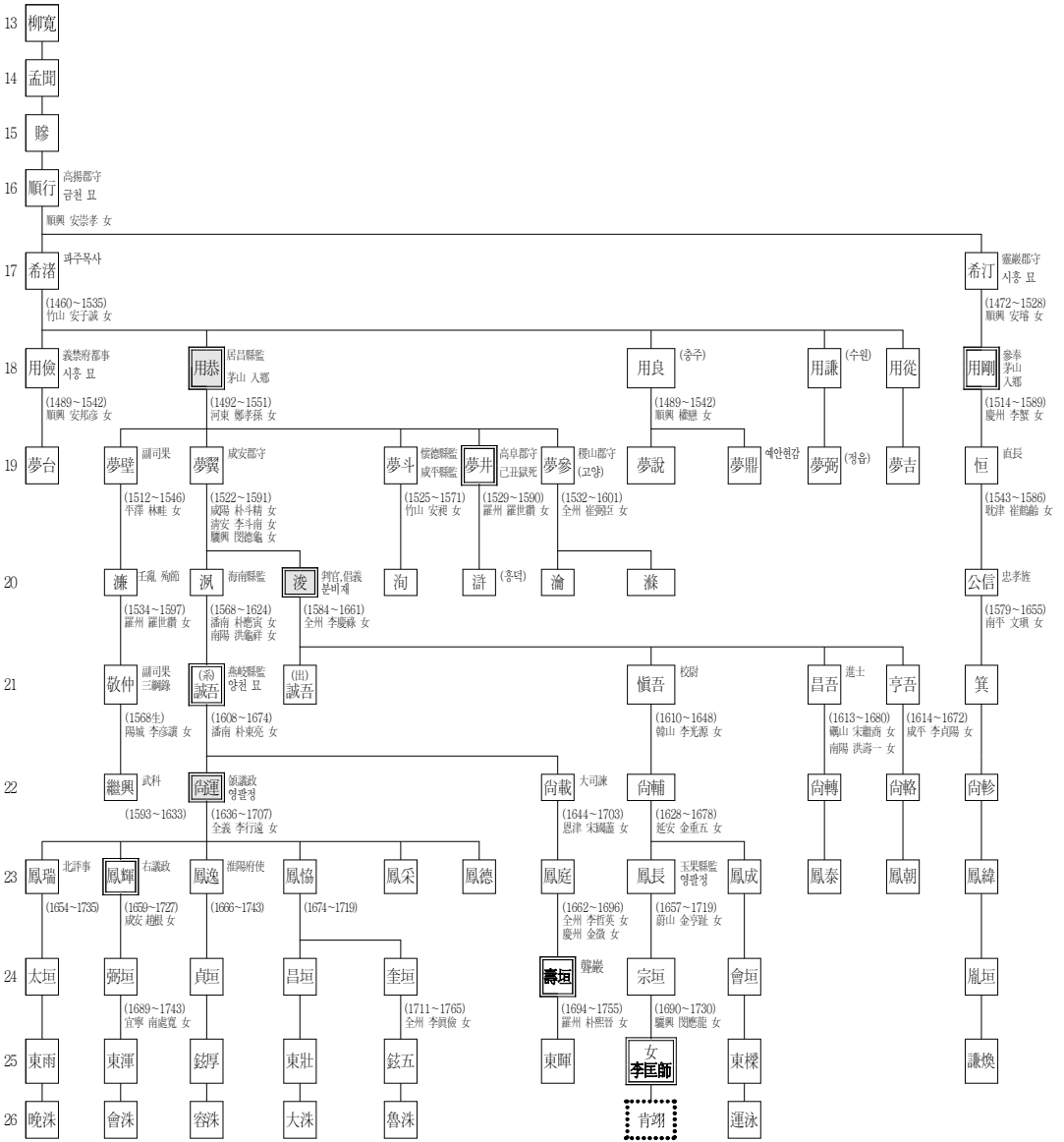
湖南은 실학의 선구인 磻溪 柳馨遠(1622~1673)이 20여 년간 扶安에서 살면서 당대의 농촌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체제까지 개혁하고자 제시한 『磻溪隨錄』을 집필한 곳이며, 茶山 丁若鏞(1762~1836)이 康津에 유배가서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실학의 산실이자 최종 완성을 이룬 고장, 즉 실학의 始終地라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문화유씨 하정공과 가문으로 호남을 근거로 하여 부안 우반동이 반계 유형원의 개혁을 꿈꾸는 산실 역할을 했다면, 영암 茅山村은 저서 『迂書』를 통해 새로운 개혁사상을 역설한 龔菴 柳壽垣(1694~1755)을 배출한 토대가 되는 땅으로 주목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곳으로 판단된다.

모산촌은 문화유씨 중시조인 夏亭 柳寬(1346~1433)이 전라도관찰사 재직시에 큰 아들인 柳孟聞에게 지명한 땅으로, 유맹문의 현손인 柳用恭(1492~1551)과 유용공의 從弟인 柳用剛(1514~1589)이 입향하여 문화유씨 집성촌으로 성장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산유씨로 불리는 이곳은 영의정 約齋 柳尙運(1636~1707), 좌의정 晚菴 柳鳳輝(1659~1727)의 父子 政丞을 배출한 곳이며, 또한 농암 유수원이 이 모산촌 문화유씨의 후예로 주목된다. 이밖에 모산촌은 東國眞體의 서체를 창안한 서예의 대가인 圓嶠 李匡師(1705~1777)의 妻家이자 이광사 아들로 실증적 역사서인 『燃藜室記述』을 저술한 李肯翊(1736~1806)과 信齋

李尙翊(1738~1780)의 外家로서 소론 실학의 중심지로서 주목되는 곳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잘 남아 있고 유적이 잘 보존된 모산촌 연구를 통해 농암 유수원의 가계와 경세론의 배경을 밝혀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유수원, 이광사, 이공익 등과 연관된 1755년(영조 31) 나주괘서사건이 모산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모산촌 문화유씨의 입향과 가계 분석을 통해 재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1589년(선조 22) 己丑獄事로 인한 집안의 被禍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수원의 고조인 四矯 柳浚(1584~1661)의 憤悱齋 강학 활동, 증조인 約齋 柳尙運의 영팔정 중수, 나주괘서사건과 모산촌 쇠락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1〉茅山村 文化柳氏 家系圖

## 2. 모산촌 입향과 기축옥사

### 1) 문화유씨의 모산촌 입향

모산촌은 본래 羅州郡 非音面(兪井面)에 속했으나, 현재는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를 말한다. 1895년(고종 32)에 영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의해 靑龍里, 松坡里, 山亭里, 泉洞(샘골), 黃溪里, 九萬里, 송내, 龍洞, 九岩里, 新基里, 黑石店 등 12개 마을을 통합해 모산리라 하였다.

현재 모산리 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시대의 ‘茅山里 龜巖古墳’이 있고, 마을에 오랜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茅山里 堂祭’ 등으로 보아 전통마을로서 연원이 깊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산촌은 한때 문화 유씨들이 300여호나 살았으나 현재는 100여호만 남아 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 ‘湖南名基茅山’ ‘大丞相杖履之鄉’이란 비가 서 있는데, 대승상 유상운이 지팡이를 짚고 고향으로 내려와 여생을 보낸 곳이라는 뜻이다.

모산촌 문화유씨는 유수원의 11대조 柳寬을 중시조로 하는 夏亭公派에 해당한다(<도1> 茅山村 文化柳氏 家系圖 참조). 夏亭公 柳寬은 삼사판관 柳安澤과 어머니 동래정씨 鄭起文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유관의 자는 夢思·敬夫, 호는 夏亭이며, 시호는 文簡이다. 하정 유관은 고려 말부터 조선 세종대까지 고려 4명, 조선 4명, 모두 8명의 왕을 섬겼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淸白吏의 표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1371년(공민왕 20) 文科에 급제, 典理正郎·典校副令·成均司藝·內史舍人·司憲中丞을 역임하고, 조선 건국 후 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7년(태조 6) 左散騎常侍·大司成, 형조와 공조의 典書를 지내고, 1400년(정종 2) 江

原道 都觀察使, 1405년(태종 5)에는 全羅道 都觀察使로 나가 민생을 살폈다. 태종 초 大司憲, 鷄林府尹을 역임했다. 1406년(태종 6) 判恭安府事로 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1409년 藝文館大提學으로 知春秋館事를 겸직하였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다시 左賓客, 1424년 81세에 우의정에 승진하여 「高麗史」를 수교하여 選進하고 致仕하였다.

유관의 부인으로 初娶는 廣陵君夫人 安氏이고, 再娶는 豐川夫人 李氏 戶曹典書 悚의 딸이다. 안씨 소생으로 3남 孟聞, 仲聞, 季聞을 두고, 이씨 소생으로 1남 異聞을 두었다.<sup>1)</sup> 큰아들 맹문은 吏曹參判, 중문은 大護軍, 계문은 刑曹判書, 이문은 萬戶에 벼슬하며, 이후 후손들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勳舊家門으로 자리매김한다.<sup>2)</sup> 유관 이래 衿川(시흥) 일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에 세거하면서 이 지역에 묘소를 겸한 田莊을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sup>3)</sup>

모산촌 입구에 소재한 詠八亭(전라남도 기념물 제105호) 안내판에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유관이 모산리의 지세와 경관이 좋아 동쪽 촌락지로 정하고, 그의 큰 아들 유맹문에게 지시하여 1406년(태종 6)에 정자를 건립하였다고 전함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정자 이름은 마을 이름 모산의 ‘茅’와 유관의 호인 하정의 ‘亭’을 따서 ‘茅亭’이라고 하였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사료적 근거는 없지만 모산촌과 유관 가계와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유맹문의 손자 柳順行, 유순행의 아들 柳希渚(1460~1535),<sup>4)</sup> 柳希汀

1) 「文簡公柳寬神道碑」(1891). 유관 선생 묘는 楊根 王忠里(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로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되어 있다.

2) 김승대(2017c), 198~199면.

3) 정만조(2014a), 24면.

4) 유희저는 『成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515년(중종 10)경에 光州牧使를 역임한다. 牧使 安子誠의 딸과 혼인하여 5남 2녀를 두는데, 아들은 用劍. 用恭. 用良. 用

(1472~1528)의 묘역도 금천(시흥) 일대에서 확인되는데, 유희저의 둘째 아들 유용공과 유희정의 넷째 아들 유용강 이래로 현재까지 모산촌 지역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sup>5)</sup> 유용공과 유용강의 입향 경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모산촌은 세종 초기 咸豐魯氏가 처음 터를 잡았고, 함풍노씨의 외손인 寧海朴氏가 입향을 하였다고 전해오는데 현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이후 河東鄭氏 10세손 사헌부 장령을 지낸 鄭希周가 하동에서 담양으로, 아들 鄭宜仲이 모산촌의 만석군인 영해박씨 진사 朴遵美<sup>6)</sup>의 무남독녀 사위가 되어 1430년(세종 12)에 모산촌에 입향하게 된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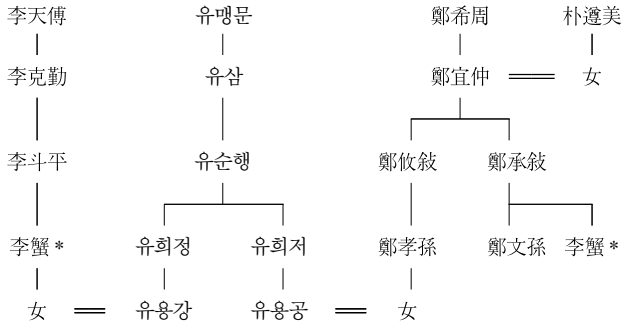
모산촌에는 하동정씨 제각인 茅山詞(모산리 산 51)가 천동마을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鄭孝孫의 사촌 동생인 慕孝齋 鄭文孫(1437~1554),<sup>8)</sup> 霞谷 鄭運龍, 忠壯公 鄭運을 배향하고 있다.

이후 정의중의 손자 鄭孝孫<sup>9)</sup>의 딸과 柳用恭(1492~1551)이 혼인을 하였고, 정효문의 숙부인 鄭承敍의 사위<sup>10)</sup>이자 1519년(중종 14) 己卯士禍때 피화된 기묘명형 중 한사람인 茅山 李蟹(1468~1525)<sup>11)</sup>의 딸과 柳

謙. 用從이다.

- 5) 『문화유씨하정공파과보』 권1(2002), 3~20면.
- 6) 2018년 6월 13일 모산촌 현지답사 과정에서 柳和善, 유재균 등의 안내로 모산리 산정 마을 뒤편에서 박준미의 묘소를 확인하였다.(신북면 모산리 산 15 소재)
- 7) 영암향교(2018), 『靈巖郡氏族入鄉世居史』, 890면.
- 8) 정문손의 자는 光胤, 掌令 鄭希周의 증손이다. 기묘사화 때에 정암 조광조를 구원하는 성균관 유생의 중심인물로 己卯名賢 중 한 사람이다. 관련 유적으로는 정문손 효자정려(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慕孝齋(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신흥마을)가 현존한다.
- 9) 『正德二年丁卯九月初七日司馬榜目』에 보면, 1507년(중종 2) 式年試 생원 三等에 정효손이 기록되어 있다. 자는 子述, 본관은 하동, 거주지는 나주, 부친은 鄭依敍(承仕郎, 前青山訓導)이다.
- 10) 『萬家譜』, 8책 66면(하동정씨); 『大東野乘』, 己卯錄續集, 別科時薦舉人 “生員李蟹 羅州人 才行兼備 踐履篤實 明經孝親 不事學.”

用剛(1514~1589)이 혼인을 하면서 이후 문화유씨 하정공 가문이 모산촌에 입향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도2〉 모산촌 문화유씨 입향과 연혼 관계

또한 柳希汀이 영암군수를 역임한 시점이 1525년(중종 20)<sup>12)</sup>으로 확인되는 바, 이 무렵에 아들 유용강(당시 11세)과 조카 유용공(33세)이 모산촌으로 입향하였다기 보다는 이들의 말년이나 아들 대에 이르러 모산촌 정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공의 자는 而遜, 호는 茅崗이며, 부인은 하동정씨 정효손의 딸이다. 사헌부 감찰을 거쳐 1550년(명종 5)에 거창현감을 역임하다 이듬해 관아에서 순직하였다. 하동정씨와 사이에 5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夢壁, 夢翼, 夢斗, 夢井, 夢參이다. 묘는 모산촌 인근인 서당동 송림산(신북면 용산리 237)에 소재한다.

11) 羅州 榮江祠(나주시 영산동 39-8,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8호, 1712년 건립)에 중종대 조광조를 따르는 기묘명현 중에 한사람인 茅山 李蟹(1468~1525)와 조카 李永祐, 이해의 증손이자 효행으로 이름이 높던 李有慶(1543~1609)을 배향하고 있다.  
 12)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3월 10일 기사, 사헌부에서 영암군수 유희정의 파직을 건의하나 허락 않았다.



큰 아들 柳夢璧(1512~1546)은 平澤 林畦의 딸과 혼인하였고, 副司果를 역임하였다. 유몽벽이 1512년 출생임을 감안하면 유용공과 하동정씨의 혼인은 최소한 1512년(중종 7) 이전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유몽벽의 아들은 柳濂(1534~1597)으로 자는 子實, 호는 竹峰으로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의 명량해전에서 督戰 중에 순절하였다. 부인은 나주 평거면 출신으로 충청감사를 역임한 羅世纘(1498~1551)의 딸이다.

둘째 柳夢翼(1522~1591)은 유수원의 5대조이다. 자는 景南이며, 인동현감, 함안군수를 역임하였다. 부인은 셋을 두었는데, 첫째는 모산촌 인근 영암 구림의 명문가인 함양박씨 朴成乾<sup>13)</sup>의 증손녀(朴斗精의 딸)이며, 둘째는 淸安 李斗南의 딸, 셋째는 인근 영암의 여흥민씨 閔德龜<sup>14)</sup>의 딸이다. 유몽익은 3남 4녀를 두는데 이 중 유수원의 고조 柳溟(1568~1624)과 柳浚(1584~1661)은 여흥민씨 소생이다.<sup>15)</sup> 유몽익의 묘는 아버지 유용공 묘역에 같이 있는데 묘비는 象村 申欽의 아들 申翊全(1605~1660)이 撰하고 증손 유상운이 글을 썼다.

셋째 柳夢斗(1525~1571)는 懷德縣監, 咸平縣監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인은 竹山安氏 安昶의 딸이다. 죽산안씨와의 연혼은 유몽두의 할머니와도 연계되는데, 즉 유희저의 부인 죽산안씨는 牧使 安子誠(1447~1514)의 딸이다. 안자성은 1465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安超(1420~1483)의 아들로, 죽산안씨 복야공파로 『輿地圖書』 전라도 고창 인물조에서 나온다. 유몽두의 장인인 安昶은 安超 - 安子誠 - 安恂 - 安方慶으로 이어지는 죽산안씨로 문화유씨 하정공 가문과 연혼이 이루어 졌다.

13) 박명희(2001), 134~142면. 관련 유적으로 간죽정과 죽정서원, 구림대동계, 회사정 등이 있다.(박성건 - 박권 - 박두정 - 박대기 - 박승원 - 박성호)

14) 영암향교(2018), 『靈巖郡氏族入鄉世居史』, 461~465면. 여흥민씨 민덕기 가문은 인근 덕진면 노송리, 금정면 아천리에 세거하고 있다.

15) 申翊全, 『동강유집』 제11권, 유몽익 묘지명.

유몽정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洪, 洵에 대한 기록이 소략히 남아 있다.

넷째, 柳夢井(1529~1590)은 高阜郡守를 역임하였는데, 1589년(선조 22) 己丑獄死, 일명 ‘鄭汝立 逆謀事件’에 연루되어 옥사하였다. 유몽정의 부인은 羅州 羅世纘의 딸이고 자녀는 4남 2녀이다. 유몽정의 호는 淸溪이며, 장인 松齋 羅世纘의 문인이다. 선조 즉위 후 학행으로 성혼, 이지함, 김천일 등과 함께 추천되어 사헌부 지평을 거쳐 고부군수에 봉해졌다. 특히 나세찬은 사위가 다섯인데, 이 중 柳夢井, 柳濂(유몽벽의 아들이자 유몽정의 조카)이 같은 집안으로 곽혼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sup>16)</sup>

## 2) 기축옥사 피화와 가문의 성장

유몽정은 1589년 12월 己丑獄死에 직접 피화를 받은 호남 유생 중 한 사람이다. 특히 나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개청, 나세찬의 문인이 많이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sup>17)</sup> 鄭介淸, 柳夢井, 羅士忱, 羅德明, 羅德峻 등이 유몽정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 중 정개청의 문인으로 羅德峻은 유몽정의 조카 유렴의 사위이며, 羅德明(羅士忱의 아들)은 유몽정의 아들 柳諶(1529~1590)의 사위로 모산촌 문화유씨 집안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柳夢井의 推安이 들어오니 전교하기를 “옛날 제갈량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순순히 자백하고 죄에 복종하는 자는 비록 중죄라도 석방하고 飾辭 巧言한 자는 비록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죽였다. 지금 유몽정이 역적과 맺어진 상황은 귀머거리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그 사실이 편지속에

16) 권상하, 『국조인물고』 속고3 卿宰, 나세찬의 행장.

17) 이정철(2016), 69~73면.

소상하게 나타났다. 대단히 쾌심하니 어찌 용서하겠는가 마는 앞으로 심 문할 죄인이 많으니 유몽정은 우선 형벌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가두어 두라”하였다.<sup>18)</sup>

이처럼 유몽정의 피화는 모산촌 문화유씨 집안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몽정의 큰 아들 柳洞(1550~1599)의 후손은 여천 율촌으로, 둘째 아들 柳諱의 후손 들은 함평, 보성 등지로, 셋째 아들 柳瀆 후손들은 옥과 등지로 뿔뿔히 흩어져 살게 된다.

또한, 유몽정의 동생인 柳夢參(1532~1601)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유몽삼은 자는 景輿, 호는 南齋로 직산군수를 역임하였다. 부인은 인근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세거하였던 全州崔氏 烟村 崔德之(1384~1455)의 현손인 崔弼臣의 딸이다. 유몽삼의 큰 아들 柳淪(1555~1528)<sup>19)</sup>의 후손들은 영암, 고양, 장성, 고부 등지로, 둘째 아들 柳滌(1559~1621)은 경기도 광주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다.

정여립의 기축옥사가 호남 유림들에 대한 영향은 막대하였고 이를 단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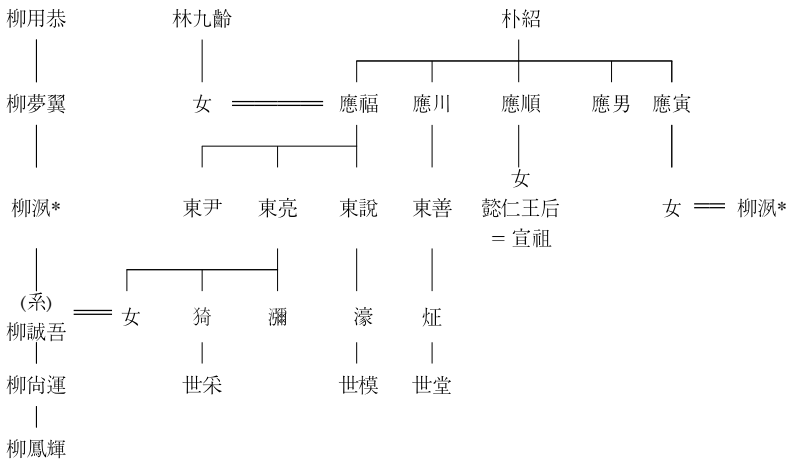
湖南은 上道에는 一齋 李恒이 있었고, 下道에는 高峯 奇大升이 있었는데, 대승은 일찍 죽어서 학문을 강론하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재는 제자는 많았으나, 오직 金千鑑만이 절의로 저명하였을 뿐 학문은 전함이 없었다. 鄭汝立이 그 뒤에 나와서 李潑·鄭介淸과 함께 相應唱和하여 온 도에 기세를 부렸으나 정여립이 반역하게 되니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호남 풍속이 경박하여 본래부터 儒術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립이 쾌망하니, 사람들이 학문하다가 죽게 된 일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여

18) 황혁, 『己丑錄』, 1590년(선조22) 경인년 6월 13일.

19) 유약의 부인은 申華國의 딸이며, 壬亂 때 순절한 申砮과 남매지간이다. 신림의 아들은 申景禎(1575~1643)이다.

호남의 학문은 이로부터 없어졌다.<sup>20)</sup>

이처럼, 유몽정과 관련하여 모산촌에 불어 닳친 기축옥사의 피화는 유용공의 큰 아들 몽벽, 둘째 아들 몽익 후손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손 유림의 사위가 정개청의 문인인 나덕준이고, 유몽정과 유림은 나세찬의 사위였기에, 이러한 연혼·사제관계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3〉 나주·영암의 반남박씨와 문화유씨의 연혼관계

유용공의 둘째 아들 몽익의 후손은 큰아들인 柳溈의 자손(성오)들은 서울 양천으로 이주해 살았고, 둘째 柳浚의 자손(신오, 창오, 형오)은 모산촌에서 계속 세거하며 집안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柳溈은 자가 浩源이며, 雲峰營將을 역임하였다. 1623년(인조 1) 老母 奉養을 위해 모산촌 인근의 海南縣監을 자원하여 부임하였다가 관아에서 순직하였다. 부인

20) 이궁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文藝典故 學問.

은 初娶 潘南朴氏 朴應寅의 딸이고, 後娶는 南陽洪氏 洪龜祥의 딸이다. 자녀가 없어 동생 柳浚의 큰아들인 柳誠吾(1608~1674, 유수원의 증조)을 繼後하였다. 유숙의 장인인 박응인은 음직으로 正의 벼슬밖에 못 했지만 그 生父는 朴紹였고 형제로는 朴應川, 應順(潘城府院君), 應男(대사헌), 應福(대사헌) 같은 명사를 두었다. 박응순은 선조왕비 懿仁王后 박씨의 아버지였다. 또한 유숙에게 입후한 유성오가 부인을 외조부의 형인 박응복의 아들 朴東亮의 딸을 맞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戚聯 때문이었다. 더구나 처부인 박동량은 참찬이란 고위직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그 아들 朴瀾는 선조부마로 錦陽尉가 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유수원 집안이 숙종 대에 중앙의 名家로서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반남박씨와의 관계가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또한 이와 함께 반남박씨의 나주, 영암지역의 재지적 기반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모산촌 인근지역인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에는 반남박씨 박동열의 재실인 履雨齋와 박동열과 아들 박호, 박정, 손자 박세모의 묘역이 있는데, 특히 박호의 신도비는 약천 남구만이 짓고 약재 유상운이 글을 써서 주목된다. 또한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백암동에는 朴東尹의 묘소와 飛鷹齋가 확인된다.

<도3>에 보듯이 반남박씨 박동량 가문이 이 지역과 연관을 맺는 것은 박동량의 어머니 善山林氏에서 찾을 수 있다. 영암 구림마을은 선산 임씨의 아버지 林九齡(1501~1562)의 세거지로 임구령은 좌찬성을 역임한 石川 林億齡(1496~1568)의 동생이다.<sup>22)</sup> 따라서 박응복과 선산임씨

21) 정만조(2014a), 24~25면.

22) 임구령은 남원부사, 광주목사, 나주목사를 역임하였고, 구림지역에 농장을 있었고, 외손인 박동윤 등에게도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고 전한다. 임구령의 무덤은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 345 영모정 마을에 소재한다. 입구에 재실인 영모재와 임구령의 영정을 모신 월당 영당이 있다.

사이의 4형제(東尹, 東說, 東望, 東亮)는 靈巖 鳩林이 외가여서 큰 아들 박동윤은 벼슬에 물러나 구림으로, 둘째 朴東說(1564~1622)<sup>23)</sup> 자손으로 朴濠(1586~1667) - 朴世模(1610~1667) 가계는 인근 엄길리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박동열의 셋째 아들인 朴淳의 손자인 朴泰初(1706~1762)는 靈巖 鳩林에 거주하며 학행이 높았는데, 특히 그는 영암 출신의 소론 실학자로 분류되는 德村 梁得中(1665~1742)<sup>24)</sup>의 스승으로 주목된다.

박동량의 딸과 유성오의 혼인, 박응인의 딸과 유숙과의 혼인 등의 戚聯도 이러한 재지적 배경이 충분히 관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성오는 유숙에게 계후되고, 외가와 처가의 반남박씨 집안과 연계되면서, 기축옥사로 인한 혼란한 모산촌을 떠나 한양으로 세거지를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 3. 유준의 분비재 강학 활동

기축옥사와 임진왜란으로 인한 어지러워져 있던 모산촌을 지키며 분비재 강학을 통해 모산촌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인물은 바로 유성오의 생부이자 유수원의 고조인 柳浚(1584~1661)이다. 그의 자는 澄遠,

23) 박동열의 자는 說之, 호는 南郭, 鳳村이다. 선조 때 우부승지, 황해도 관찰사, 형조 참의, 나주목사를 지냈다. 광해군 때 대사성으로 있던 중 鄭仁弘을 儒籍에서 삭제시킨 일로 광해군에게 미움을 받아 羅州牧使로 나갔으며, 廢母論에 반대한 일로 형인 朴東亮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었다. 부인 고령신씨 사이에 濠, 潢, 淳 등 3남 2녀를 두었는데, 伯父 박응순의 아들 박동언이 아들이 없어 둘째 潢을 繼後하였다.

24) 정만조(2014b), 35면. 梁得中の 호는 德村이며, 安邦俊의 외증손으로 영암 영계리 출신이다. 17세(1681년)에 朴泰初의 문하로 들어 갔다가 뒤에 尹拯의 문인이 되었다. 혼인도 朴東尹의 손자이자 朴淳의 아들인 朴世攀(1635~1697)의 딸과 혼인하였다.

호는 四矯이며, 부인은 太宗의 7대손인 府院君 李慶祿(1543~1599)의 딸이다. 4남을 두었는데 縣監 誠吾, 展力副尉 愼吾, 生員 昌吾, 進士 亨吾이다.

유준은 1606년(선조 39) 23세 때 생원시에 급제하여 成均館에 들어갔고, 1623년(광해군 15)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義禁府都事に 임명되어 임금을 호위한 공로로 主簿에 승진되었다. 壯年에는 관직을 그만두고 茅山村에 내려가 후학을 가르쳤다. 효성이 지극해 監察·判官에 제수되었지만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며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와 제사를 봉양하였다. 또한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나주지역에서 崔震岡, 洪命基, 李煥과 함께 의병에 舉義하기도 하였다.<sup>25)</sup>

憤悱齋<sup>26)</sup>는 1643년(인조21) 柳浚의 나이 60세에 향중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강학공간이다. 분비재는 이후 門中(洞契) 서당의 확대형으로써 지체가 비슷한 마을끼리 그 향촌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각 마을의 유능한 청년 자제를 선택하여 교육시키는 고급 강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용강의 손자 柳公信 등이

25) 『湖南丙子倡義錄』, 和順舉義通文. 和順 生員 曹守誠이發한 것으로 光州(高傳立·朴思遠 등 4名), 羅州(柳浚 등 4명), 綾州(梁禹甸 등 3명), 南平(徐荇 등 3명), 同福(丁好敏 등 2명) 등지에 有司를 擇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또한 유준의 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丙子公聞虜亂力疾奮起而歎曰國難如此吾豈忍坐視與和順曹清江守誠諸人共謀舉義募聚兵糧領送于曹公義廳移書曰身病不能躬進姑俟少差便可馳進云即見五賢倡義檄文慷慨不已遂與曹公合勢赴難聞講和罷歸自此無意於世以讀書教授爲樂遠近學者甚衆每月朔整衣冠齊會揖讓講誦白鹿洞規五倫三綱之要年七十八卒于家門人持服送葬立祠于社尤庵宋先生撰墓表”

26) 그 어원은 “不憤不啓 不悱不發”로 마음속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애대워하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論語』 ‘述而’ 편에 ‘마음으로 통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며, 애대워하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고, 한 귀둥이를 들어 주었는데, 이를 가지고 나머지 세 귀둥이를 들어 반증해 오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는다(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則不復也).’에서 나왔다. 곧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한다.

지는 「憤排齋上樑記」와 光州牧使을 역임한 申翊全이 찬한 「憤排齋記」가 정내에 현액되어 있다.

이 집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바로 전 감찰 柳侯이다. 7, 8세 때에 공부하는 방향을 정하여 경서의 구두를 떼고 의리를 분석하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세상의 儒者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책을 공부할 때에 은밀한 뜻을 궁구하려 힘쓰고 걸치레를 일삼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님과 함께 살았는데 삼십 년을 하루같이 화목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여 사마시에 붙었는데 만년에 모친을 위해 벼슬에 나아가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모친상을 당하자 슬픔에 몸을 상한 나머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마침내 벼슬에 나갈 뜻을 버리고 羅州 潘南縣 茅山村에 집을 지었다. 주변에 온통 서적을 쌓아두고 방 안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는데, 집안이 조정처럼 엄숙하였다. …… 유후가 ‘憤排’로 편역을 걸라고 하였다. 몇 년 후 아들 昌棼가 여러 학생들의 뜻에 따라 내게 기문을 받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였다.<sup>27)</sup>

申翊全은 그가 찬한 유몽의 묘지명에서도 “判官公 柳浚이 비록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벼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영 아래로 물러나 조용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도리로 삼았지만, 수많은 자손들이 모두 신중하게 행동하여 가문의 명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니, 후손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것은 그 뜻이 여기에 있으리라.”<sup>28)</sup>라고 명기하고 있어 유준이 분비재 강학을 통해 가문의 증흥을 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東江 申翊全은 象村 申欽의 아들이자 선조의 딸인 貞淑翁主와 혼인하여 東陽尉에 봉해진 樂全堂 申翊聖의 동생이다. 신익전은 다섯 아들

27) 신익전, 「憤排齋記」, 『동강유집』 제10권.

28) 신익전, 「유몽의 묘지명」, 『동강유집』 제11권.



을 두었는데 이 중 둘째 申澗이 유성오의 사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혼 관계로 인해 유준의 분비재 강학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익전은 1645년(인조 23)부터 3년간 光州牧使를 역임하게 되는데 이 무렵 모산촌에 왕래하며 교유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영팔정 뒷 편에 분비재가 위치해 있고, 그 안에 걸린 「憤排齋記」 현판에는 1648년(인조 26) 12월 22일에 兵曹參知로 있던 신익전이 柳浚에게 써 주었던 글이 남아 있다.

또한 高阜 출신 유학자인 權克中(1585~1659)<sup>29)</sup>은 유준을 같은 호남의 同鄉人으로 薦舉한 글을 남겨 주목된다.<sup>30)</sup> 권극중은 반계 유형원과 교류한 인물로, 유형원은 1657년(효종 8)에 영암 馬原에 도교의 수련술

29) 권극중의 호는 靑霞, 본관은 安東, 權俊의 아들, 전라도 古阜 書山里 출신으로 崔命龍, 金長生의 문인으로, 柳輯·金東準·柳馨遠 등과 교류하였다. 인목대비의 폐출 소식을 듣고 낙향하여 易과 內丹思想에 심취해 『參同契註解』 등을 저술하였다. 권극중은 安東權氏 僕射公派로 의금부 經歷을 지낸 權寬의 현손이다. 權寬 - 士衡 - 萬英 - 俊 - 克中의 계보로 고부에 세거하였다.

30) 權克中, 『靑霞集文集』, 薦舉書, “伏以卽今 朝廷事目方下郡縣察舉茂才篤行孝悌通博之人使之鄉薦里選無有遺餘盛矣時三代賓興兩漢貢舉齊休並美民等首以體 國家至意次焉副閣下渴求有所薦達云同鄉居前判官柳浚學識才行可應事目柳氏世稱家庭之訓而斯人則生質甚美幼有至行其事親也怡聲下氣左右就養一似曲禮所稱其執喪也不懈不怠過期如袒括朝夕省墳風雨不廢親所嗜物平生不入口一似小學所記其學問也非聖賢書不讀禁子弟勿看雜書早中司馬自從科第不公即廢應舉家世閱閱公卿薦引歷金吾郎階至尙衣判官亦非其志也退居閭巷安貧守靜二十餘年琴書草堂瑩無俗慮或農談自適或杖屨逍遙德宇盎然接面可親衣冠儼若對坐可敬隣並後生樂受訓誨負笈挾書戶外之屢常滿斯人樂易和順似無畛域而至於教人不倦則亦其天性也誘掖既至程課亦嚴從學者不涉有得遠近咸集恨無舍館爭出米布構成家塾正堂東西廡依古學宮之制冠童之聚者日常五六十人齋扁取諸論語憤悱二字齋規一遵栗谷先生節目居是堂者循循雅飭不言可知其學者誰謂湖學美風重見於今日乎不特此也嗚呼虎豹在山藜藿不採正人居邑不肖敬憚吾鄉之自遇斯人也凡人諸事自擇是非相與謂曰無見咎某先生也洛人之畏司馬端明邵先生遼人之敬管寧將無同乎民等親之愛之敬之尊之斯人德行一國宜知之知而不言當被蔽賢之謂昔北海鄭玄推明古學學者千餘國相孔融深敬於玄命其閭曰通德門東漢末君子道消薦揚無路私自寄慕而已今則幸遇 聖明新服數有求賢之旨民等烏廢鄉賢之德伏乞閣下轉報於巡相如何.”

을 깨쳐서 있는 권극중을 찾아가 丹法을 논하였다.<sup>31)</sup> 권극중의 문집에는 모산촌의 풍광<sup>32)</sup>과 판관 유준의 精舍<sup>33)</sup>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 권극중과 유준, 유준과 유형원과의 교유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또한, 권극중은 高阜 達川에 있는 柳彬(1621~1691)을 門人으로 두고, 그 곳에 방문해 상량문을 지어주거나 그 곳에서 會試를 열기도 했다.<sup>34)</sup> 이 유빈은 유몽삼의 큰 아들 柳淪의 손자로 영동, 용인 현령을 역임하였는데, 선대 유용공과 유준의 묘비를 찬하는 등 문중을 선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憤排齋上樑記」 현판에 보면 분비재는 1643년(인조 21) 9월 25일에 上樑하여 준공되었다. 이 때 유준의 三從兄인 松齋 柳公信(1579~1655)이 營建監造로 총책을 맡았다. 또한 지금의 모산리 418번지에 소재한 유공신의 기리는 忠孝亭의 「忠孝亭重建記」 현판에는 “강당을 세워 분비재라 이름하고 敎徒의 책임을 삼중제 사교당 유준이 맡고 規範과 勸課은 유공신이 스스로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모산촌 문화유씨 입향조로 알려진 유용공과 유용강 사촌 형제 집안이 협력하여 분비재를 운영

31) 유형원, 「반계연보」, 1657년(효종 8, 36세) 가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소재한 ‘風詠亭’에 반계 유형원이 이 곳을 지나며 쓴 시가 걸려 있는데, 반계가 호남 일대를 周遊하던 시기로 이 무렵에 나주·영암·광주 일대와 모산촌을 지나갔을 것으로 보여진다. “鞍馬勞勞不暫休 名亭一上豁羈愁 崗巒拱揖圍平野 鶴鶩翔回下遠洲 殊絕風煙都領畧 團欒觴詠故淹留 未必舞雩能勝此 佳辰又況屬清秋 磻溪 柳馨遠”

32) 권극중, 「청하집시집」, 권4, 寄呈柳判官 錦城茅山里, “名勝茅山洞桑榆卷晚霞中間靜散地居住道人家籬繞蟹腸竹園生雀舌茶近來休問訊悵望海雲涯.”

33) 권극중, 「청하집시집」, 권5, 寄題羅州柳判官精舍 二首, “邑號羅州又錦城茅山第一好坊名肥饒巨野供田畝拔秀奇山獻爽清魚出德津紅鬢鬣菜生靈浦紫蕪菁可憐景物兼風味爲想高人栖隱情佳麗烟霞別作寔名州名郡兩中間茶林竹藪常葱蒨海舶江船互往還勝地全湖一都會高人此世飽清閑何時款段精廬訪共對靈巖月出山.”

34) 권극중, 「청하집시집」, 권7, 雜著.

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유준의 분비재 강학활동을 펼치던 1643년부터 1661년(현종 2) 유준이 죽기까지 20여년간 모산촌 문화유씨 가문은 鄕中 자제를 가르치고 지역 유림을 키우는 거점 공간으로 기틀을 마련해 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무렵이 되면 모산촌 문화유씨는 입향 이전의 모산촌의 중심 가문이었던 하동정씨 정효손 가문과 경주이씨 이해 가문보다 모산촌 마을에서 더욱 독자적인 기반을 잡아가던 시기로 보여진다.

현재 분비재 뒷 편에는 사교당 유준과 약재 유상운을 배향하는 竹峰祠가 있다. 竹峰祠는 李肯翊의 『練藜室記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sup>35)</sup> 이공익은 이 책에서 나주, 영암 일대의 서원을 나주의 景賢書院·旌烈祠·月井書院·潘溪書院·眉泉書院·竹峯祠宇·松齋祠宇·滄溪書院·雪齋書院·榮光祠宇·西河祠宇, 영암의 鹿洞書院·竹亭祠宇·西河祠 등 13개소로 기술하고 있다.<sup>36)</sup> 이를 정리하자면 <표1>과 같다.

<표1> 연려실기술에 수록된 나주·영암 지역의 서원

서원명	건립	사액	배향인물	현 소재지
景賢書院	1583(선조16)	1607(선조40)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金誠一	나주 노안 영평
旌烈祠	1606(선조39)	1607(선조40)	金千鎰, 金象乾, 梁山瑞, 林檜	나주 대호동
鹿洞書院	1630(인조 8)	1713(숙종39)	崔德之, 崔忠成, 金壽恒, 金昌協	영암 교동
月井書院	1659(효종10)	1669(숙종10)	朴淳	나주 노안 금안
潘溪書院	1694(숙종20)	1694(숙종20)	朴尙衷, 朴紹, 朴世采, 朴泰輔	나주 반남 흥덕
眉泉書院	1692(숙종18)	1692(숙종18)	許穆	나주 안창동
竹峯祠宇	1664(현종 5)		柳浚, 柳尙運(1729년 追配)	영암 모산촌

35)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竹峯祠宇는 갑진년에 세웠다. 柳浚의 호는 四矯堂, 벼슬은 判官이다. 柳尙運은 숙종 때의 정승이다.”

36)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祀典典故 書院.

松齋祠宇	1702(숙종28)		羅世繼, 林亨秀	나주 문평 동원
滄溪書院	1710(숙종36)		林泳	나주 다시 가운
雪齋書院	1688(숙종14)		鄭可臣, 鄭軾, 申楮	나주 노안 영평
榮江祠宇	1712(숙종38)		李龜, 李懈, 李永祐, 李有慶	나주 영산동
西河祠宇	1724(경종 4)		李敏叙, 李健命, 李觀命	나주 남평
竹亭祠宇	1681(숙종 7)		朴成乾, 朴權, 朴奎精, 李晚成	영암 구림

나주 경현서원은 1583년(선조 16) 서문밖 경현동에 창건되었는데, 李滉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나주목사 金誠一과 나주나씨 가문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서원 운영권을 두고 남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1655년(효종 6) 乙未獄事라는 서원 향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 사건 이후 각각의 세력은 별도의 서원을 건립하는데 서인계 호남사람은 1659년에 朴淳을 배향하는 月井書院을, 남인계 호남사람은 1690년(숙종 16)에 백호 임제의 외손이자 나주 회진에서 출생한 남인의 영수인 眉叟 許穆를 배향한 眉泉書院을 건립하였다.<sup>38)</sup>

또한 서인의 노소 분당 이후에 노론계열의 대표적인 서원은 1630년(인조 8)에 설립되고 1713년(숙종 39)에 賜額된 영암 영보촌의 전주최씨 烟村 崔德之와 영암에 유배 온 노론계의 영수인 文谷 金壽恒, 農巖 金昌協 부자를 배향한 鹿洞書院,<sup>39)</sup> 1724년(경종4)에 李敏叙 · 李健命 · 李觀命를 배향한 西河祠 등을 들 수 있다.

소론계열의 대표적인 서원은 모산촌의 竹峯詞와 나주 회진의 滄溪 林泳<sup>40)</sup>을 배향한 滄溪書院, 朴世采 · 朴泰輔 등 반남박씨 문중의 磻溪書

37) 김문택(2007).

38) 고영진(2017), 95면.

39) 김경욱(1991).

40) 본관은 羅州, 자는 德涵, 호는 滄溪, 나주 회진 출신으로 李端相 · 朴世采의 문인이 다. 1671년 정시문과에 급제, 그 뒤 이조정랑 · 검상 · 부제학 · 대사헌 · 전라도관찰

院를 들 수 있다.

죽봉사는 1661년 柳浚이 죽고 3년후인 1664년(현종 5)에 유준을 배향한 사우에서 출발하였는데, 1707년 유상운 死後 1729년(영조 5)에는 유상운을 추가 배향하였다. 죽봉사는 유상운, 유봉휘 부자 정승을 배출한 숙·경종대에는 영팔정과 함께 모산촌의 정신사적 중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호남지역 소론의 중심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유상운의 영팔정 중수

約齋 柳尙運은 모산촌 문화유씨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주로 한양 일원에서 생활하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나 말년에는 모산촌에서 많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산촌은 할아버지 유준과 숙부인 柳愼吾(1610~1648), 柳昌吾(1613~1680), 柳亨吾(1614~1672) 등의 친족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가문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따라서, 그가 숙종대에 핵심적인 소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모산촌 출신으로 이 곳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약재 유상운의 아버지인 柳誠吾(1608~1674)는 1633년(인조 1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蔭職으로 慶基殿參奉에 나갔다. 1661년(현종 2) 懷德縣監 시절에는 饑民救恤을 하여 御使 呂聖齊의 啓奏로 表裏를 하사받는 은전을 입었고, 이 후 和順縣監, 燕岐縣監을 역임하였다. 그는 반남박씨(박동량의 딸)와의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柳

---

사·대사간·개성부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尙運, 柳尙載이고, 사위는 申暹, 李徵善, 趙時立이다.

약재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가족이 서울에서 남쪽인 모산촌으로 피난가는 중에 堤川縣 九億山 아래 墨溪村에서 태어났다.<sup>41)</sup> 『約齋集』 約齋年譜<sup>42)</sup>를 보면, 그는 유년시절을 모산촌에서 보냈는데, 3세(1638, 인조 16)에는 經痘하였고, 7세(1642, 인조 20)에는 모산촌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한다. 이처럼 유년시절을 모산촌에서 보낼 수 있던 것은 모산촌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유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무렵인 1643년(인조 21)에는 할아버지 유준이 분비재의 강학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이다. 이후 약재는 17세(1652, 효종 3) 겨울에 모산촌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이듬해에 할머니 이씨가 죽자 모산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27세(1662, 현종 2)에는 할아버지 유준이 죽자 상을 모산촌에서 치르면서 머물게 되었다. 그의 년보에는, 할아버지 유준이 만년에 분비재에서 모산촌의 鄉子弟를 가르쳐 50여명의 문인을 배출하였고, 이후에 그를 기리는 죽봉사가 건립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43)</sup>

유상운은 朴世采와 閔峯, 閔汝蓋 등에게 수학하였다. 특히, 外從四寸 朴世采(1631~1695)는 숙종 연간 皇極蕩平論을 주창한 대표적인 탕평론자이며, 민업은 사계 김장생에게 『大學』, 『家禮』 등 諸書를 배운 학자였다. 또한 유상운은 同春堂 宋浚吉의 문하에 출입한 것으로도 확인

41)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文獻編, 進士公諱昌吾墓表, 178~179면.

42) 『約齋集』, 冊6, 約齋年譜.

43) 『約齋集』, 冊6, 約齋年譜, 二年辛丑 二十六歲 遭生祖考四矯堂公喪, “四矯堂公萬曆甲申十月十三日生丙午生員 仁廟癸亥拜金吾郎甲子護 駕公州己巳拜尙衣院判官丙子胡亂公與曹清江守誠倡義詳載丙子倡義錄公晚居羅州茅山楸下教授鄉子弟扁其齋曰憤排九月初六日卒享年七十八門下總服者五十餘人 贈左承旨後五年乙巳士林建書院于茅山竹峯下後十二年公撰行狀門人縣監柳彬又撰行狀權青霞克中撰薦舉書葬于靈巖郡東清風院坐甲之原尤菴宋文正撰碣公書”

된다.44)

유상운은 1666년(현종 7)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지평, 교리, 도승지, 대사간, 부제학, 광주유수, 황해감사, 평안감사, 이조판서, 호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두루 거치며, 1696년(숙종 22)에는 영의정에 오른다. 약재는 서인으로, 다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고 나서는 소론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약재는 무조건적인 소론의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기 보다는 숙종대의 탕평에도 참여<sup>45)</sup>하기도 하였고, 호조판서를 여러차례 역임하며 明禮宮 海稅 징수 혁파, 戶布制 및 奴婢從母法 시행 건의하는 등 유능한 經世濟民의 능력을 보여준 일면도 있어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

〈표2〉 모산촌 영팔정에 현존하는 현판

현판명	년도	주요 내용	비고
① 茅山八景		李珥 二景 詩	
② 茅山八景		高敬命 詩	茅山村 風光 詩
③ 茅山八景		南以恭 詩	
④ 詠八亭上樑文	1689.1.30	柳尙運 찬, 柳鳳長 씀	1985년 정자 보수증 발견
⑤ 茅山序詠八亭	1692 暮春	柳尙運 찬	山亭主人 柳尙運
⑥ 記夢	1702. 여름 1713. 2	南九萬 찬, 柳鳳輝(전라관찰사) 追記	
⑦ 詠八亭		柳尙運 書	현판
⑧ 詠八亭		南九萬 書	현판
⑨ 詠八亭重修記	1985	金太環	

44) 『肅宗實錄』 권16, 숙종 11년 8월 5일 기사.

45) 南九萬, 『藥泉集』, 권21, 墓碣銘, 「領議政柳公墓碣銘」, “其判銓書 白于 上曰 吳道一心靈氣勝 是其病痛 而李秀彥乃以諂媚權姦目之 朝廷不可含糊不辨 任其乖激 必須兩非 可以鎮定矣 上可之 後政秀彥黜補湖南觀察 道一點補嶺東觀察 公之本意 實欲息不靖之端 致和平之福 無容輕重於其間 而彼此皆懷不平 唯上諒公心之無他”

약재가 관직을 마치고 고향인 모산촌에 내려와 살았던 시기는 57세(1692년) 때였다.<sup>46)</sup> 그가 모산촌에 내려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바로 詠八亭 중수였다. 영팔정은 처음에는 茅山の 茅와 夏亭의 亭을 따서 茅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율곡 이이, 제봉 고경명, 남이공, 유상운 등이 주변 경관을 읊은 八詠詩, 즉, 여덟 개의 노래로 읊어서 ‘詠八亭’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영팔정에는 현재 정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현판 9개가 걸려 있다<표 2>. 먼저 ①의 栗谷 李珥(1536~1584)가 읊은 모산팔경이 있다. 현재 二景(竹嶺明月, 斷橋尋春)의 두 구절의 쇠기만 현판에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여섯 구절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의 霽峯 高敬命(1533~1592)이 지은 모산팔경은 모산촌에 찾아와 모산의 풍광을 읊었는데, 여기에는 죽령에 밝은 달(竹嶺明月), 호산에 저너 햇빛(虎山落照), 단교에 찾아온 봄(斷橋尋春), 가을 들녘 바라 봄(秋郊晚望),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작은 술잔(槐陰小酌), 구천에서의 낚시(龜川釣魚), 송파에서에서 활쏘기(松坡射侯), 남당에서의 순채 캐기(南塘採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sup>47)</sup> ③의 茅山八景의 팔영시는 小北의 영수였던 雪簑 南以恭(1565~1640)이 쓴 내용이다.

④의 『詠八亭上樑文』은 유상운이 1689년(숙종 15) 호조판서로 재직할 당시 짓고, 유상운의 從姪이자 圓嶠 李匡師의 처조부인 柳鳳長(1657

46) 약재년보에 보면, 약재는 1692년에 모산촌으로 와서 1694년(숙종 20)에 이조판서가 되어 올라가기 전까지 3년 남짓 이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7) 高敬命, 『霽峯集』 卷之三, 『茅山八景』, “竹嶺明月 灑灑金波上泠泠玉露聞茅君清不睡 鶴髦對捎雲, 虎山落照 落景初銜岫煙村更覺深獨歸林下逕苔上靜籟金, 斷橋尋春 沙際春歸早幽人逸興牽行吟不知遠信脚過前川, 秋郊晚望 錯繡香梗熟溝澗一望平楓林聞社鼓喜氣屬田更, 槐陰小酌 晚酌槐陰下田家老瓦盆醉來圓小夢白首枕盤根, 龜川釣魚 釣石深難見青竿出岸高風絲時遠掣斜日閃銀刀, 松坡射侯 松影搖樓榭春莎錦樣鮮手柔弓又燥風外鼓淵淵, 南塘採蓴 清曉南塘路山童蠹翠藍水絲驚滿掬至味調肥甘”



~1719)이 글씨를 쓴 것이다. 이 상량문에는 유상운이 옛 茅亭터에 새로운 정자를 지으면서 그 이름을 ‘詠八亭’이라 칭했고, 이 상량문을 작성하였던 것이다.<sup>48)</sup> 이 상량문은 1985년에 영팔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들보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상량문이 지어진 1689년(숙종 15)은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己巳換局이 있었던 해이다.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은 유상운은 호조판서에서 삭출되어 廣州 栗里(현 성남시 분당구 율동)로 퇴거했다. 약재는 2년 후인 1691년(숙종 17)에는 天安 大同面 水土美村으로, 천안 小東面 黔巖으로 移居하였다. 1692년(숙종 18년) 늦봄에는 아예 모산촌으로 낙향하여 寓居하였는데 자신을 山亭主人이라 칭하였다. 이 때 영팔정을 짓게 되는데, 그의 나이 57세 때였다. ⑤의 『茅山序詠八亭』 팔영시는 57세 유상운이 직접 쓴 글로, 여기에서 약재는 자신의 고향을 모산촌이라 칭하며 할아버지 사교당 유준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지키며 이어 가고 있다.

모산리의 會社亭은 예전부터 있었다. 병자호란 후에 나의 선조 사교당 유준이 세운 정자의 옆에 집을 짓고 마을 자제들을 가르치고 계셨으나 정자가 폐허되고 선생도 돌아가신 후에 諸生이 제사를 지내고 그 집 재목으로 祠宇의 옆으로 옮겨져 지었으나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하고 정자 역시 汚陋하여 지나가는 사람마다 외면하였다. 나는 고향을 떠난 지 17년만에 숙종 병진년(1676)에 돌아오자 정자를 허물고 두 기둥을 높이 세우고 기와로 집을 덮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사치스럽게 보였다. 정자의 벽에 諸君子 열사람의 八景詩가 있었는데 兵亂을 겪으면서 혹은 없어지고 혹은 있기도 하여 그 喬木의 옛 懸板을 거니 이 곳 마을 어른들이 공경하지 않아 이 정자의 來歷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유를 열거하여 판에

48) 柳尙運, 「詠八亭上樑文」, “…… 遂於梓澤舊墟 册茲茅亭新舍 ……”

쓰고 八節의 韻賦도 붙이니 이제 엄하게 나라 일을 보고 돌아온 느낌이다. 壬申년 늦봄에 山亭主人 유상운 쓰다.<sup>49)</sup>

이 상량문에서 유상운은 16년전인 41세(1676, 숙종 2)에 호남 경시관으로 있을 때부터 영팔정 중수를 시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할아버지 유준의 유업을 중시여기고, 고향인 모산촌에 대한 생각이 컸음을 알 수 대목이다.<sup>50)</sup> 한편, 이 무렵 약재는 1674(현종 15)에 아버지 유성오의 상을 당해, 삼년상을 치른다. 이 때 모산촌 인근인 靈巖莘山村(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신산마을) 眉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sup>51)</sup> 이 뿐 아니라 약재는 모산촌 인근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데, 집안 동생인 柳尙軫(1647~1693)<sup>52)</sup>이 모산촌에서 가까운 汾水洞(현 영암군 금정면 와운리)에 ‘寂庵’이라 칭하는 집을 짓고 살자 이 곳을 방문하여 自適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⑥의 『記夢』이란 이름의 현판은 1702년(숙종 28)에 南九萬이 쓰고, 1713년(숙종 39) 유상운의 아들 유봉휘가 追記한 내용이다. 1702년(숙

49) 柳尙運, 『往茅山序詠八亭』, “序 茅山之會社亭古也丙丁亂後吾先祖 四矯堂寓居于亭之傍教授鄉子弟設齋于亭之舊墟扁以慎悱及 先生沒而諸生合辭俎豆之撤齋之材移構于祠宇之側爲藏修所尤齋所以有莘莘之歎而亭因以廢過者咸咨嗟焉余以丙辰歲離鄉十七年而歸亭始巋然廣其兩楹易其陶瓦雖謂之侈後觀宜矣亭壁舊有諸君子八詠之什而中經兵燹或逸或存今將謀揭舊梓以賁溪山而諸長老謂不佞知茲亭之興廢俾識其顛末遂列如右且用板上詩韻賦得八絕以寓令戚返國之感云爾山亭主人 柳尙運悠久甫題。”

50) 2018년 6월 13일 모산촌 현지답사 과정에서 山亭 主人 약재 유상운의 집터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은 불리는 곳은 신북면 모산리 201-1(하정길 18-13)로 산정마을에 소재한다.

51) 『約齋集』, 冊6, 約齋年譜, “肅宗大王元年乙卯 四十歲 奉凡筵大歸靈巖之莘山村築室於眉山之下居焉”

52) 『約齋集』, 冊5, 適庵記, “茅山柳公仲張 晚年居此洞作此庵 以余曾過適庵 要余一言不敢辭以燕拙 仍復次適韻詩曰 屋上多奇峯 屋下多怪石 中有屢空巷 逍遙任自適 余言不阿 覽者詳之”; 유상진의 자는 仲張, 유용강의 현손이자 유공신의 손자로 유상운과는 12촌 동생이다. 1684(숙종 10)에 문과에 급제하여 葵樹察訪를 역임하고 만년에 낙향하여 적암에 은거하며 시를 즐겼다.

종 28)은 유상운과 절친인 소론의 영수인 南九萬이 각각 稷山과 牙山으로 유배가게 되는 해이다. 이 때 남구만은 유배를 가면서 자신이 꿈속에서 약재와 함께 강가에서 놀았던 기억을 시로 지었는데, 이 글이 『記夢』이다. 남구만은 이 글을 아들 南鶴鳴을 시켜 모산촌 詠八亭에 판각하여 걸도록 하였다. 이후 1713년(숙종 39)에는 당시 전라도 관찰사 柳鳳輝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현판에 追記하였다.<sup>53)</sup>

유상운과 남구만의 인연은 집안간의 연혼관계로 이어 지는데, 유상운의 아들인 유봉휘는 남구만의 손자인 南處寬(남학명의 아들)을 사위로 삼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구만은 약재의 묘비 뿐만 아니라 약재의 큰 아들인 유봉서의 묘비까지 직접 지어 주는데 그만큼 막역한 집안간의 내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⑦, ⑧의 『詠八亭』이라 쓰여진 현판 글씨는 두 개가 현존한다. 영팔정 정면에 걸린 현판 글씨는 약재 유상운이 썼고, 정자 내부에 걸려진 현판 글씨는 남구만이 썼다. 이는 약재가 1689년 영팔정 상량문을 지었을 때였거나, 1692년 영팔정 서문을 쓸 때로 여겨지며, 남구만의 『詠八亭』 글씨는 1702년 『記夢』의 글을 쓸 무렵으로 추정된다.

모산촌 문화유씨의 중심에 약재 유상운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영팔정 유적 이외에 모산촌 인근에 약재가 쓴 비석이 8개나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재는 글씨를 잘 써서 금석 문자가 많았으나, 현존하는 묘도문은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산촌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묘도문은 의미있고 특징적인 양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8개 비석 중 할아버지 유준이 찬하고 유상운이 글씨를 쓴

53) 南九萬, 「記夢」, “與君相去一程許 莫接容儀且阻書 獨有分明前夜夢 共登江閣膾嘉魚 歲壬午夏 藥泉南先生謫牙山先君謫稷山同罪也 先生夢與先君遊會津覺而有詩 平素契許之深此亦可見令先生胤子鶴鳴來示手書草稿仍托板揭羅州茅山之詠八亭亭 是吾家先舊居而會津下州境也癸巳仲春全羅道觀察使柳鳳輝謹識”

비석은 4개(②, ④, ⑦, ⑧)나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표3〉 모산촌 인근 유상운이 쓴 현존하는 금석문

비명	년도	연령	형태	위치	비고
① 柳夢翼 墓碑			신익전 찬, 유상운 씀.	영암 신북면 용산리 산 2-2	曾祖
② 柳泓 墓碑			유준 찬, 유상운 씀.	영암 신북면 용산리 237	祖父
③ 柳浚 墓碑	1682년(숙종 8)	47	송시열 찬, 유상운 씀.	영암 영암읍 학송리 산16	生祖
④ 柳繼興 墓碑	1655년(효종6) 10월	20	유준 찬, 유상운 씀.	영암 덕진면 금강리 산19-20	三從兄
⑤ 朴濠 墓碑			남구만 찬, 유상운 씀.	영암 서호면 엄길리 130-14	朴東說 子
⑥ 朴世模 墓碑	1696년(숙종 22) 경		박세당 찬, 유상운 씀.	영암 서호면 엄길리 130-14	朴濠 子
⑦ 柳公信 墓碑			유준 찬, 유상운 씀.	영암 금정면 와우리 분수동	柳浚 三從兄
⑧ 柳公信 孝子碑	1692년(숙종 18)	57	유준 찬, 유상운 씀.	영암 신북면 모산리 418	柳浚 三從兄

①의 유몽익 묘비는 동강 신익전이 찬하고, 유상운이 글씨를 썼다. 유몽익은 유상의 증조로 모산촌 인근인 서당동 송림산(현 신북면 용산리)에 선대 묘역에 위치한다. ③의 유준 묘비는 영암 청풍원(현 영암읍 학송리)에 소재하는데 우암 송시열이 찬하고, 손자인 유상운이 글을 썼다.

송시열(1607~1689)은 유준의 묘비뿐만 아니라 1674(현종 15) 유성오가 죽자 유상운의 부탁을 받고 유성오의 묘비까지 撰한다. 이는 유성오의 회덕현감 재임시절부터 송시열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유성오는 1660년(현종 1)에서 1661년(현종2)까지 1년간 회덕현감을 역임하였다.<sup>54)</sup> 이 무렵 병조판서로 재직하였던 송시열은 병으로 사직을 청

54) 朴世采, 『南溪集』 16, 刑曹佐郎贈戶曹參判柳公行狀, “……崇禎癸酉中司馬試 明年

하고 회덕에 은거하고 있었고, 동년배였던 송시열과 유성오의 두 사람간 교유는 충분히 보여진다.



〈도4〉 유상운 쓴 유준 묘갈(좌), 유공신 효자비(우)

이뿐 아니라 송시열과 유성오 집안은 연혼관계로도 얽혀 있다. 송시열의 아들인 宋基泰(1629~1711)<sup>55)</sup>는 유준의 손자인 柳尙輔(유신오의 아들)의 사위가 되었고, 유성오의 둘째 아들 柳尙載는 송시열 집안인 회덕의 宋國燾<sup>56)</sup>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송시열과 유성오 집안간에는 老少가 분당되기 이전에는 당시 같은 서인의 당론을 갖고 친분을

除慶基殿參奉 丙子移拜昌陵參奉 虜亂作 奉親避兵于湖南 甲申復除章陵參奉 丙戌陞內資寺奉事 未幾忤權貴罷 明年除典設司別檢 戊子丁洪夫人憂 壬辰除青巖察訪 遭生母李氏喪 丙申復除典設別坐 旋以夏亭公緇蔭陞六品 除翊衛司衛率 明年除德山縣監 己亥坐事罷 庚子由刑曹佐郎出爲懷德縣監 繡衣以治績聞命賜表裏而以獎之 辛丑遭判官公喪 甲辰除和順縣監 秩滿而歸 明年拜燕岐縣監 癸丑棄官 寓于廣州栗峴里……”

55) 자는 來伯, 송시열의 아들이며 금산 군수를 지냈다. 친부는 時瑩으로 송시열은 오형제 중 셋째인데 형제 모두 아들이 없어 4촌 형 시형의 아들을 후사로 들였다.

56) 은진송씨 송국신의 가계는 宋柑壽 - 宋希建 - 宋國燾 - 女(유상재)로 확인된다.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④의 유계흥 묘비는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에 소재한다. 柳繼興(1593~1633)은 유용공의 큰아들인 몽벽의 증손으로 유준에게는 三從兄이다. ⑤의 朴濠 묘비의 유상운이 외당숙인 박호의 묘도문을 쓴 것이고, ⑥ 朴世模 묘비는 유상운의 외가 6촌 형이자, 박호의 아들인 박세모에 대한 묘도문이다. 박호와 박세모 묘비는 모산촌에 가까운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에 소재한 박동열 자손의 묘역에 위치한다. 이는 반남박씨 가문이 나주·영암지역의 대표적인 호남 소론 가문중의 하나임을 반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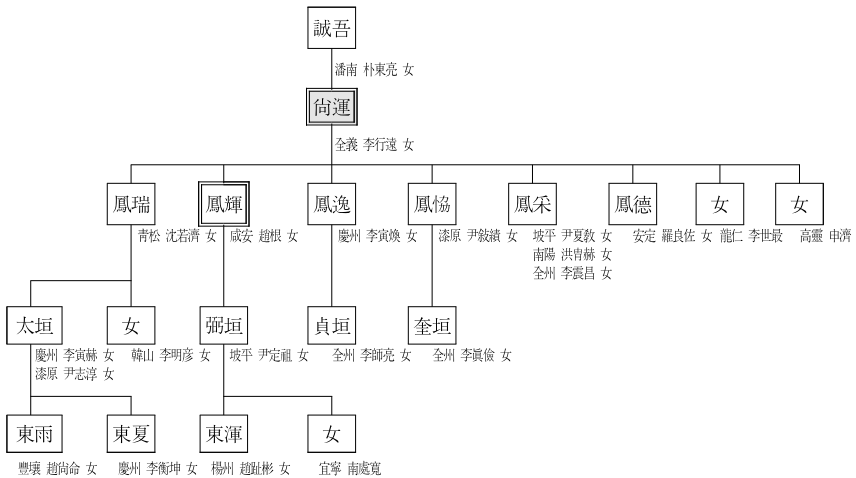
⑦의 柳公信 墓碑와 ⑧의 柳公信 孝子碑는 사교당 유준의 三從兄인 유공신의 효행과 관련한 金石文이다. 유공신은 모산촌에 거주하며 효행으로 이름 난 인물로 이 두 비문은 유준이 찬하고, 유상운이 글씨를 썼다. 특히 효자비는 약재가 57세인 1692년(숙종 18년)에 모산촌에 내려와 우거하였을 때 지은 것으로, 본인을 山亭主人이라 칭하고 영팔정을 지었던 해에 건립되었다. 현재 ⑧의 효자비는 모산리 초입에 있는 忠孝亭 옆에 소재한다. ‘孝子柳公信之門’이라는 전면 글씨와 후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상운은 숙종대 소론의 영수인 윤증, 박세채 등과 의기투합해 정사를 처리하였다. 유상운의 둘째 아들 유봉휘와 함께 부자가 모두 相臣이 되었고, 유봉휘 역시 峻少의 입장이었다. 유상운이 1692년(숙종 18년) 모산촌에 영팔정을 중수하였고, 아들 유봉휘는 1713년(숙종 39)에 전라도 관찰사로 모산촌을 오고 갔었다. 이처럼 모산촌은 부자 정승의 가장 든든한 정치, 경제적 배경이 되었고, 이무렵 모산촌 문화유씨도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운이 일찍부터 선대의 田莊이 있는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율현(현 강남구 율현동, 수서 일대) 聽泉堂이라든가 石松精舍와 같은 명칭을

지닌 서재를 두고 벼슬에서 잠시 물러났을 때는 주로 여기에 머물렀다.57) 모산촌 역시 유상운 선대의 田莊이 있었고, 유상운과 유봉휘의 2대 정승까지 배출함에 따라 모산촌의 경제적 뒷받침도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상운은 1650년(효종 1)에 전의이씨 李行遠(1592~1648)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행원은 척화론자로 우의정에 오른 인물이었다. 전의이씨와의 사이에서 5남 2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鳳瑞는 청송심씨(沈若濟의 딸), 둘째 鳳輝는 함안조씨(趙根의 딸), 셋째 鳳逸은 경주이씨(李寅煥의 딸), 넷째 鳳協은 칠원윤씨(尹敍績의 딸), 다섯째 鳳采는 과평윤씨(尹夏教의 딸), 남양홍씨(洪胄赫의 딸), 전주이씨(李震昌의 딸)과 여섯째 鳳德은 안장나씨(羅良佐의 딸)와 혼인하고, 큰 딸은 용인이씨 李世最에게, 둘째 딸은 고령신씨 申濟(申翼相 아들)에게 출가하였다.



〈도5〉 柳尙運 子孫의 家系圖

57) 『藥泉集』 책5, 聽泉堂記; 정만조(2014a), 30면.

<도5>에서 보듯이 유상은 자손들의 연혼관계는 대체로 소론계열의 유명 가문으로 청송심씨 심약제, 경주이씨 이인혁(李慶徽의 아들), 이형곤(李慶億의 孫), 칠원윤씨 尹志淳(尹敍績의 아들), 파평윤씨 尹定祖(尹趾善의 아들), 의령남씨 남처관(남구만 손자), 전주이씨 이진검(李大成의 아들, 이광사의 부친), 이사량, 풍양조씨 조상명(趙涑의 증손), 한산이씨 李明彦(李顯英의 증손), 안정나씨 羅良佐(윤선거의 문인) 등이 확인된다.

유상운의 아들 중 첫째 봉서와 둘째 봉휘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柳鳳瑞(1654~1699)는 1689년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치르는 柑製에 장원으로 뽑혔고, 곧 전시에 나가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지평, 정언, 병조 정랑, 포천현감, 대정현감, 홍양현감 등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99년(숙종 25) 北評事로서 임지인 鏡城의 客館에서 사망하였다.<sup>58)</sup> 그는 성품이 정직하고 엄격하여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비록 친척이나 가까운 知人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봉휘는 1684년(숙종 10) 진사가 되고, 1697년(숙종 23) 庭試에 급제한 이후 정언과 문학, 지평, 부수찬, 승지, 대사간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소론의 맹장으로 활동하였다. 숙종년간 말기인 이 무렵에는 아버지 유상운이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판충추부사 등을 역임하고 있었기에 부자가 정계에서 가장 활발한 소론 중심 가문으로서 크게 활약하였다고 하겠다.

경종이 즉위한 이후 유봉휘는 1721년(경종 1) 8월 상소를 올려<sup>59)</sup> 노론 4대신이 중심이 되어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고자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삼사와 노론이 유봉휘는 “국분을 동요한다”며 유봉휘

58) 『藥泉集』 권24, 校理柳君墓碣銘.

59) 『景宗實錄』 권4, 경종 1년 8월 23일 신사.



를 공격했으나 영의정 趙泰耆의 상소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 왕세제의 대리청정이 실현되자, 소론의 영수로서 경종이 병을 앓지 않은데도 대리청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극간해 철회시키고 노론을 파출시켰고, 이러한 소론 주도의 정국에서 유봉휘는 대사헌, 한성판윤,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탕평책으로 노론·소론의 연립 정권이 수립될 때 우의정이 되었고, 이어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좌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신임옥사를 일으킨 주동자라는 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이듬해 면직되었다. 이 해 다시 李鳳翼·閔鎭遠 등의 논척으로 경흥에 안치되었고 1727년 4월에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다.

유봉휘는 1711년(숙종 37) 당시 양민에게 큰 부담이던 軍布의 폐단의 시정을 건의한 바 있었고,<sup>60)</sup> 1713년(숙종 39) 전라도관찰사 재직시에는 전라도 각지의 진휼책에 대해 상소<sup>61)</sup>하여 처분을 받는 등 經世家的 일면도 엿볼 수 있어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 특히 그는 1712년(숙종 38)에서 1714년(숙종 40)까지 3년 남짓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는데, 당시 관찰구역이며 자신의 문화유씨 문중의 중심지인 나주 모산촌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남구만의 시를 1713년(숙종 39) 전라도관찰사 당시 영팔정에 걸어 顯揚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死後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자 官爵이 회복되었으나, 1755년 나주괘서사건으로 다시 반역죄로 追刑되고, 1908년(순종 2)에서야 復官되었기에 사료적 한계가 큰 유봉휘에 대한 재평가는 향후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아 있는 유봉휘와 관련된 유적은 3개소로 확인된다. 먼저, 경

60) 『承政院日記』 권461, 숙종 37년 7월 5일 임진.

61) 『肅宗實錄』 권54, 숙종 39년 9월 10일 갑인.

기도 양평의 유봉휘 묘소<sup>62)</sup>와 1705년(숙종 31)에 세워진 용인현령 선정비(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30-1), 부안 格浦鎮터(부안군 격포리 격상마을 421-4)에 남아 있는 ‘觀察使柳公鳳輝恤民善政碑’(1714년) 정도가 남아 있다.

이처럼 유상운, 유봉휘 부자 정승을 배출한 모산촌은 숙종, 경종대에 최고 극성기를 구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중심에 영팔정 중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존하는 유상운이 쓴 금석문을 통해 사교당 유준 이래로 모산촌 문화유씨 가문의 현양사업을 약재 스스로가 주도하여 전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상운은 자녀들을 한양 일원의 소론 명문가와 연혼관계를 통해 입지를 크게 다져 나갔음을 확인하였다.

<표4>의 모산촌 문화유씨의 주요 인물을 顯官을 중심으로 15세기에서 19세기 이전까지를 주로 살펴 보았는데, 이는 모산촌의 유수원 가문의 盛衰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서 보듯이 유수원 가문은 18대 유용공, 유용강대에 모산촌으로 입향한 이래 19대 유몽의 형제 대에 이르러 과거와 연혼을 통해 나주·영암 일대의 재지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간다. 20대 사교당 유준은 모산촌 일대의 士林의 宗師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21대 유성오 후손은 주로 한양 일원에서, 그 밖의 신오·창오·형오 후손은 모산촌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2대 유상운, 23대 유봉휘, 24대 유수원 대에 이르면 문과·사마에 급제하고 현달한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여 모산촌 문화유씨 가문의

62) 원래는 양천 은행정(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은행정)에 있다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로 이장하였다. ; 呂圭亨(1908),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贈諡忠靖柳公諱鳳輝墓碑, “영조는 유봉휘가 사망한 직후 歸葬을 허락하여, 아들 柳弼垣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를 陽川 銀杏亭里에 쓸 수 있었다. …… 비문의 글씨를 쓴 柳漢鼎은 유봉휘의 7세손이다.”

최고 전성기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유상운, 유봉휘의 부자 정승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정치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겠고, 무엇보다 모산촌을 중심으로 한 호남 소론의 주근거지로서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4〉 茅山村 文化柳氏 主要 顯官 및 墓山(15~19세기)<sup>63)</sup>

世代	姓名	科擧	主要官職	家系	墓山 所在地	墓道文字
17	希渚	文	順天府使 坡州牧使 工曹參判	順行 子	시흥	
17	希汀	文	靈巖郡守 南原判官 咸平縣監	順行 子	시흥	
18	用儉	進士	義禁府都事	希渚 子	시흥	
18	用恭	進士	居昌縣監	希渚 子	영암 모산촌	柳浚 撰, 柳彬 書
18	用良	生員	司憲府監察	希渚 子	충주 노은	
18	用謙		海南縣監 全州府尹	希渚 子	광주 오포	
18	用剛 (陰)	參奉		希汀 子	영암 분수동	
19	夢璧 (陰)	虎賁衛 副司勇		用恭 子	영암 모산촌	
19	夢翼 (陰)	軍資僉正 刑曹正郎		用恭 子	영암 모산촌	申翊全 撰, 柳尙運 書
19	夢斗	文	懷德·咸平縣監	用恭 子	영암 모산촌	
19	夢井	進士	司憲府執義 古阜郡守 南原府使	用恭 子	영암 모산촌	
19	夢參 (陰)	虎賁衛 副司勇 稷山郡守		用恭 子	고양 사리현	
19	夢鼎	文	羅州牧使	用良 子	충주 안락리	
19	夢弼			用謙 子	정읍 오곡리	張顯光 撰
20	濂		丁酉再亂 鳴梁海戰 殉節	夢璧 子	영암 모산촌	柳浚 撰
20	泓	文	雲峯·海南縣監	夢翼 子	영암 모산촌	柳浚 撰, 柳尙運 書
20	浚	生員	尙衣院判官, 士林 宗師	夢翼 子	영암 청풍원	宋時烈 撰, 柳尙運 書
20	湑	進士	司襄院參奉, 丙子胡亂 倡義	夢井 子	興德(失傳)	
20	公信		孝行	用剛 子	영암 분수동	柳浚 撰, 柳尙運 書
21	誠吾	進士	刑曹佐郎, 德山·懷德·燕岐縣監	泓 子	양천 ⇒ 양명	宋時烈 撰, 李正英 書
21	愷吾		展力副尉	浚 子	영암 청풍원	
21	昌吾	生員	幼學	浚 子	영암 청풍원	
21	亨吾	進士	幼學	浚 子	영암 우도	

63)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司馬榜目』, 『國朝榜目』 참조.

21	仁男	武	宣傳官	淪子	영암 모산촌	
21	義男	生員		淪子, 古阜居	장성 북상면	
21	信男	(陰)	淸道郡守, 獻陵參奉, 振威縣令	淪子	공주 신기리	
22	繼興	武	中樞府都事	夢瑩 曾孫	영암 금강리	柳汝撰, 柳尙運 書
22	尙運	文	領議政	誠吾子	양천 ⇒ 양평	南九萬撰, 崔錫鼎 書
22	尙載	文	副提學, 大司諫, 海南縣監	誠吾子	양천 ⇒ 양평	李宗城撰
22	尙連	武	冤山縣監, 黃州鎭管兵馬節制都尉	昌吾子	영암 우도	
22	尙轉		副司果	昌吾子	영암 모산촌	
22	楸	生員	義禁府都事	義男子, 古阜居	장성 북상면	
22	攀	進士	都事, 行靑巖道察訪	愼中子, 古阜居	영암 모산촌	
22	彬	進士	永同·龍仁縣令	信男子, 古阜居	장성 북이면	
22	尙軫	文	樊樹道 察訪	用剛 玄孫, 箕子	영암 금정면	
23	漢徵	生員	幼學	攀子, 尤庵 門人	영암 모산촌	
23	漢明	武	會寧 長湍 濟州 江界 兵水使	楸子	장성 기동	
23	鳳瑞	文	弘文館校理, 知製教	尙運子	양천 ⇒ 양평	南九萬撰, 劉鳳輝 書
23	鳳輝	文	左議政	尙運子	양천 ⇒ 양평	
23	鳳逸	進士	淮陽府使	尙運子	양평 강하면	
23	鳳協	進士	王子師傅	尙運子	양천	
23	鳳采	生員	佐郎	尙運子	양천	
23	鳳齡	(陰)	原州牧使	尙載子	광주 율원	李成中撰
23	鳳長	(陰)	玉果縣監	尙載子	강진 정동리	
24	弼垣	文	廣州府尹	鳳輝子	양천	
24	壽垣	文	司憲府掌令	鳳廷子	양천	
24	昌垣	進士	教官 都事	鳳協子	영암 모산촌	
24	明垣	進士	教官	鳳齡子	양천 신기리	
24	宗垣	(陰)	貞陵參奉	鳳長子, 李匡師 妻父	나주 식산촌	
24	太垣	進士	幼學	鳳瑞子	양천 ⇒ 양평	
24	壽鼎	進士	幼學	柳楸孫, 古阜居	장성 기동	
24	壽觀	進士	義禁府都事 江界兵馬僉節制使	漢明子, 長城居	장성 기동	
25	東賓	文	承政院注書	宗垣子, 李匡師 妻男	양주 율리	
25	光顯	進士	孝 慶基殿參奉	楸 四世孫	장성 기동	李基慶撰
27	致榮	進士		愼仲 七世孫	영암 모산촌	
27	運榮		憤排齋 懸板 書	愼吾 六世孫	영암 모산촌	

## 5. 나주괘서사건과 모산촌의 쇠락

### 1) 나주·영암 지역의 주요 소론 가문

1639년(인조 17) 9월 선조의 부마인 申翊聖은 羅州牧使로 부임하는 金尙宓(1573~1652)을 전송하면서 “호남은 나라의 근본이고, 금성은 호남의 근본이 되니, 공이 맡은 임무는 실로 한 일국의重任을 어깨에 지는 것이다”<sup>64)</sup>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나주가 호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호남의 근본으로 여겨진 나주에서 羅州掛書事件이 발생한 것은 1755년(영조 31) 1월이었다. 일명 ‘乙亥獄事’로 지칭되는 이 사건은 나주 객사에 나라와 노론을 비방하는 掛書가 붙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소론 강경파들이 영조 즉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더 크게 확대되었는데, 당시 실세 노론은 이 사건을 逆謀로 몰아 소론을 일망타진하는 계기로 삼았다.

제주도에서 나주로 이배되어 유배생활을 하던 尹志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윤지는 주모자로 체포되어 영조의 親鞫을 받고 처형당하였다. 윤지의 아들 尹光哲, 나주목사 李夏徵, 朴纘新, 趙東鼎, 趙東夏, 金潤 등은 사형되었고, 尹得九 등은 遠竄되었다. 5월에는 討逆慶科庭試에서 答案紙變書事件과 관련, 윤지의 일파인 沈鼎衍, 尹惠, 金道成, 申致雲 등이 모두 사형되었다.

이러한 乙亥獄事 과정 속에서 모산촌의 문화유씨의 후예인 소론 유수원은 처형되었고, 모산촌을 처가로 둔 원교 이광사는 이 사건에 연좌되

64) 『樂全堂集』 第5卷, 序, 送金羅州 尙宓 序. “…… 第湖南爲國之根本 錦城爲湖南之根本 公之爲任 實肩一國之重矣 知其爲任之重……”

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교당 유준 이래 유상운, 유봉휘의 부자 정승을 배출한 호남 소론의 근거지였던 모산촌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다.

앞서 나주·영암 일대의 서원을 살펴 보았듯이, 배향 인물과 가문에 따라 당색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론 계열의 서원은 모산촌의 죽봉사와 나주 회진의 나주임씨 관련 창계서원, 그리고 반남박씨 문중의 반계서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소론계 가문으로는 전주의 전의이씨 晩庵 李尙眞(1614~1690)<sup>65</sup> 가문, 태인의 여산송씨 宋明淵 가문을 확인 해 볼 수 있다.<sup>66</sup> 따라서 숙종에서 영·정조 시기에 소론의 가장 중심 근거지로서 모산촌은 약재 유상운과 만암 유봉휘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씨 가문이 가장 현달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나주괘서사건을 계기로 소론 중심세력의 정점에서 약재와 만암이 몰락하면서 호남지역에서 급격하게 소론세력이 위축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주·영암 일대의 문화유씨, 나주임씨, 반남박씨 등 소론 가문과의 연흔과 나주괘서사건과의 연관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나주·영암 지역의 주요 소론가문으로 영암 구림과 엄길리에 세

---

65) 자는 天得, 호는 晩庵이다. 부운 李廷鸞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李遵吉, 아버지는 參奉 李榮先이며, 어머니는 참판 閔汝任의 딸이다. 1645년(인조 23)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효종대 司憲府持平, 司諫院正言을, 현종대 이조참판·대사간,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1678년(숙종 4) 이조판서·우의정을 역임하였다. 1689년 왕비의 폐위 문제의 부당함을 간하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 종성·북청·철원 등지로 귀양갔다 향리로 돌아가 세상을 떠났다. 1695년에는 청백리(清白吏)에 선출되었다. 또 전주에 章甫祠院을 세우고, 1708년에는 북청에 있는 李恒福의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내게 하였다. 시호는 忠貞이다. 묘는 부여군 은산면에 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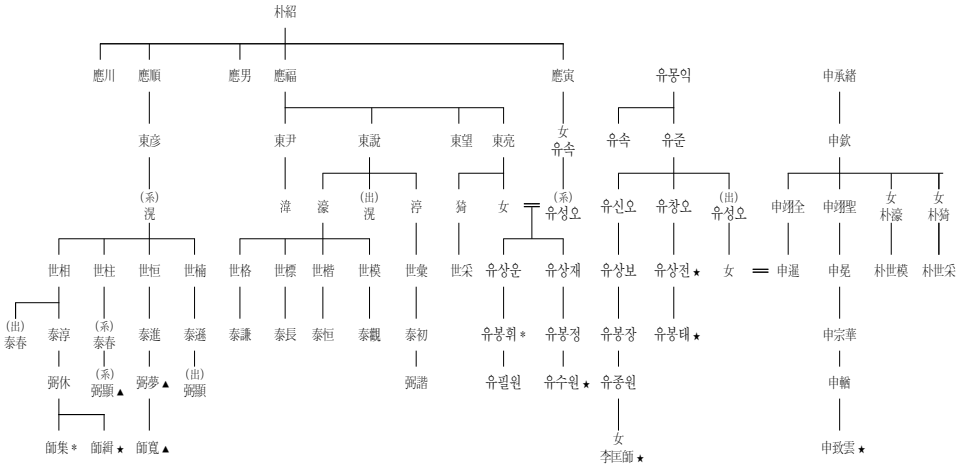
66) 오경택(2011), 『조선전기 전주지역 士族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169~174면.

거한 반남박씨 박동열의 후손들을 들 수 있다. 박동열은 1611년(광해군 3) 나주목사를 자청하여 나주에 부임하였는데, 그는 지역의 土豪를 다스리고, 儒業을 일으키기도 했다.<sup>67)</sup> 현재 영암 엄길리에 있는 박호, 박세모의 묘도문자는 남구만과 박세당이 각각 찬하고, 유상운이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론의 중심인물들이 서로 친밀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호의 셋째 아들 朴世楷(1615~1698)와 후손의 묘가 나주 지역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sup>68)</sup>

특히, <도6>에서 보듯이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어 伏誅된 인물로 반남박씨 집안의 박동열에서 박응순의 아들 박동언으로 출계한 박황의 후손에게서 많이 나왔음을 주목 해 볼 수 있다. 박황의 손자 박태춘은 박세상의 아들로 숙부인 박세주에게 출계하였는데, 박태춘에게 다시 사촌인 박태손의 아들 박필현을 入系시킨다. 또한 박필현이 종질인 박사집이 나주괘서사건과 연루됨을 확인할 수 있어, 1728년(영조4)에 일어난 戊申亂 이후 복주된 소론 반남박씨는 박황의 집안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7) 『象村稿』, 觀察使朴公神道碑銘, “公不樂在朝求爲羅州牧使羅爲湖南一都會稱難治鄉之士大夫樹黨相傾憾忿睚眦輒成仇敵積數十年官不能制公下車招長老諭之先立表率選邑中髦士風礪作成教課無虛日終公之世齊闕帖息儒業大興蔚有淹中稷下之聲”

68) 朴世楷의 아버지는 朴濠, 祖父는 羅州牧使를 지낸 朴東說이다. 부인은 나주임씨 林瑋의 딸이며 아들은 判敦寧府事를 지낸 朴泰恒이다. 만년에 처가인 나주 회진에 낙향하여 영산강 구진포 강가에 1669년(현종 10)에 寄傲亭을 건립하며 살았다. 기오정이란 현관은 李匡師의 친필로 1762년 신지도로 유배 가는 도중에 정자에 들려 현관 글을 썼다고 전해 온다. 박세해의 묘는 나주시 다시면 신흥리에, 후손들의 묘는 나주, 영암 일원에 위치한다.



<凡例> ▲: 무신란(1728), ★: 나주왜서사건(1755) 연루되어 伏誅된 인물

〈도6〉 문화유씨, 반남박씨, 평산신씨 연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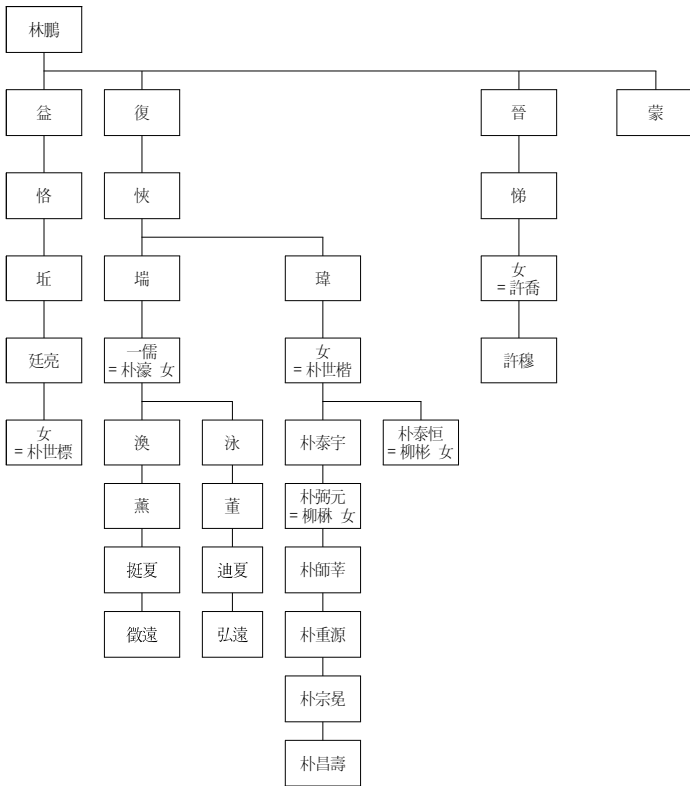
박필현과 박필몽은 1728년(영조4)에 일어난 戊申亂에 이미 복주된 대표적인 峻少 계열이었다. 당시 태인현감 朴弼顯(1680~1728)은 金一鏡과 가까운 친족인 權益寬의 처남으로, 무신란에서 호남지역 반란의 책임자였다. 그는 전북 태인에서 거병하였는데, 박필현의 6촌 형으로 茂長에 유배와 있던 朴弼夢(1668~1728)과도 함께 거사를 도모하였다. 이때 같이 복주된 박필현의 형제 조카는 朴弼龍·朴弼夔·朴師寬 등이었다.<sup>69)</sup> 당시 박필몽의 아들인 朴師寬를 공초한 결과, 박사관은 전주에 거주하며, 태인의 박필현, 무장의 박필몽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였다. 내응을 약속했던 당시 전라도 관찰사 鄭思孝(박필몽 처의 사촌)가 반란군에 호응하지 않자 전주성 점령은 결국 실패로 돌아 갔다.<sup>70)</sup>

69) 고수연(2017), 158~161면.

70) 『英祖實錄』17권, 영조 4년 4월 14일 갑오.



또한 이와함께 평산신씨 신희의 가문도 주목되는데, 신치운은 신익성(신희의 큰 아들)의 4대손으로 나주괘서사건으로 복주된다. 이처럼 향후 나주·영암 일대의 소론인 반남박씨 박항의 후손 등에 대한 좀 더 궁구한 조사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7〉 羅州林氏 林泳 家系圖

다음으로 나주 지역에 세거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소론 가문은 羅州 林氏 滄溪 林泳 가문이다. 나주임씨는 나주의 토성으로 고려대의 엘리트 무장이었던 林庇의 후손들이다. 麗末鮮初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며 살아 왔던 나주임씨는 중종대 林鵬(1486~1553), 林復(1521~1576) 父子의 문과 합격을 기점으로 현달하여 성장·발전하였다. 임복의 증손인 漢城府庶尹 林一儒(1611~1684)는 반남박씨 박호의 딸을 초취, 임천조씨 조석형의 딸을 재취로 맞는 등 서인 명가와와 혼맥을 통해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임일유의 셋째 아들인 林泳(1646~1696)은 나주임씨 중에 가장 현달한 인물이다. 임영은 이단상, 박세채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성, 대사헌, 개성유수 등을 지내며 死後에 나주 창계서원에 배향되었다. 박세채와 임영의 사제 관계는 나주임씨 가문이 소론으로 활동하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영의 아들 林薰은 소론의 명가인 해평윤씨 尹斗壽 가문, 파평윤씨 尹昌世 가문과 혼인하였고, 유상운의 문화유씨, 남구만의 의령남씨, 이경석의 전주이씨, 최석항의 수원최씨, 조한영의 창녕조씨 등과 함께 소론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sup>71)</sup> 하지만 임영의 증손자인 林弘遠 대에 이르면 나주임씨 가문도 鄉儒化되는데, 이는 모산촌의 문화유씨와 같이 나주괘서사건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사례가 나주괘서사건에 복주된 임일유의 현손인 林徵遠을 주목해 볼 수 있다. 林徵遠<sup>72)</sup>은 나주괘서사건의 주모자인 尹志와 친한 사이로 모산촌 문화유씨 柳尙轉(유창오의 아들), 柳鳳泰 부자와 윤지의

71) 김학수, 권오정(2003).

72) 장서각 고문서에는 1724년 3월 5일에 임정원이 중종조부 임영의 제사에 올린 제문이 확인된다.

집을 왕래하며 사건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 따라서 임징원의 복주로 인한 나주임씨 가문의 타격도 컸으리라 짐작된다.

林國薰을 형신하니, 임국훈이 공초하기를, “尹志 父子와 서울 사람으로 서로 친한 사람은 신이 모르지만 李夏徵은 일찍이 윤지와 서로 친하였으며, 이하징이 나주에 있었을 때에는 윤지의 아들이 늘 官衙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으로 서로 친한 자는 林徵遠이며 柳鳳輝의 친족인 柳尙轉 및 유상전의 아들 柳鳳泰 또한 윤지의 집에 왕래하였습니다.”<sup>73)</sup>

이처럼 나주괘서사건의 주모자 尹志는 모산촌의 문화유씨 유상전·유봉태 부자, 회진의 나주임씨 임징원 등의 주요 소론 가문을 규합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 尹光哲과 함께 1750년부터 6년간 筆契를 조직하여 세력을 늘려 나갔다. 여기에는 나주의 향반 金沆 형제, 林國薰 부자 뿐 아니라 아전인 李濟春, 林天大, 羅貴永, 奇彦杓, 李宗茂, 李孝植, 吳時大 부자 등 나주 지역의 소론들을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계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또한 앞서 살펴 본 임일유의 처남이자 조카 사위인 朴世楷(朴濠의 아들, 林瑋의 사위)의 반남박씨 가문과 나주임씨 가문, 그리고 柳彬, 柳楸의 문화유씨 가문이 호남 소론으로 겹혼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종대 문신이었던 박세해의 6대손 蘭石 朴昌壽(1817~1897)의 글인 『蘭石集』에서도 모산촌의 문화유씨가 언급되고 있다.<sup>75)</sup>

73) 『英祖實錄』 영조 31년 3월 7일 경진.

74) 『英祖實錄』 영조 31년 2월 21일 을축.

75) 박장수, 『난석집』1, 柳宜鳳 詩, “……和茅山柳戚姪 - 宜鳳, 南坡亭八景(前村暮烟, 遠天朝霞, 竹裏清風, 松間明月, 白龍宿雲, 靑林過雨, 雪中寒梅, 霜前叢菊) ……”

## 2) 농암 유수원과 나주괘서사건

농암 유수원은 1755년(영조 31) 5월 25일, 羅州掛書 사건에 연루되어 大逆不道罪로 처형되었다. 농암 유수원은 모산촌 문화유씨의 후예로 사교당 유준의 현손이고, 유성오의 증손, 유상운의 동생인 柳尙載(1644~1703)의 손자이자, 柳鳳庭(1662~1696)의 아들이다.

농암의 할아버지인 유상재는 1674년(현종 15)에 아버지 유성오가 죽자 이듬해 형인 유상운과 함께 모산촌 옛집으로 돌아와 居喪을 치렀고, 1690년(숙종 16)에는 1693년(숙종 19)까지 4년여 간 모산촌에서 가까운 해남군수로 부임하였다.<sup>76)</sup> 또한 해남군수에서 물러나서는 다시 모산촌으로 돌아왔는데,<sup>77)</sup> 앞서 살펴본 1692년(숙종 18) 유상운의 영팔정 중수 때에 함께 모산촌의 자신의 문중을 선양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상재의 부인이자 농암의 할머니인 은진송씨(宋國薰의 딸, 1642~1694)는 농암이 태어나던 해에 모산촌에서 죽은 것으로 보아 1690년대에 유상재는 형인 유상운과 함께 모산촌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柳壽垣은 7세(1700년, 숙종 26)때 伯祖 유상운에게 나가 배우기 시작하였기에,<sup>78)</sup> 이미 서울에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농암이 10살 되던 해인 1703년에 할아버지 유상재는 양천에서 죽어 이 곳에 묻힌 것으로 보아 양천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부 柳鳳齡(1678~1743)이 1706년(숙종 32) 蔭仕로 世子翊衛司 洗馬로 제수된 것으로 보아 숙부와 가까운 곳에 거주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안에서 편찬된 『文化柳氏夏亭公派譜』에 실린 文獻編 속의 ‘原州牧

76) 『承政院日記』 숙종 16년 12월 15일 신미; 해남현감 유상재의 淸德善政碑는 현재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72-2 서림공원 내에 위치한다.

77)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문헌편 191~196면, 大司諫柳尙載運墓碣文(李宗城).

78)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문헌편 205면.

使公諱鳳齡行狀<sup>79)</sup>에 보면 유수원의 숙부 유봉령은 1678년(숙종 4)에 柳尙載과 여산송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모산촌에서 태어났다. 유봉령은 6세(1683, 숙종 9)에 伯父 유상운에게 소학을 배우고, 11세(1688, 숙종 14)에 藥泉 南九萬(1629~1711)에게 논어를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농암의 할아버지, 아버지대에 모산촌에 세거한 정황이 확실히 확인되는 바, 유수원의 모산촌에 대한 왕래와 가문의 영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농암 유수원의 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외가에 대한 연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sup>80)</sup> 유수원은 갑술환국이 일어난 1694년(숙종 20) 柳鳳庭(1662~1696)과 후처인 慶州金氏(1672~1744) 사이에 忠州 新堂洞(현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유봉정은 유수원이 세 살 때 35세 나이로 죽었기에 주로 그 어머니 경주김씨에게 자랐다고 생각된다. 출생지인 충주 신당동은 외가로 추정된다.<sup>81)</sup>

外祖인 金澂(1633~1698)은 충주에 세거하는 경주김씨 중 중종 때 명신인 十淸軒 金世弼(1473~1533)<sup>82)</sup>의 5대손으로 확인된다. 김정의 자는 士涵이며 承仕郎 품계를 가지고 있다.<sup>83)</sup> 아버지는 金振坤이며, 할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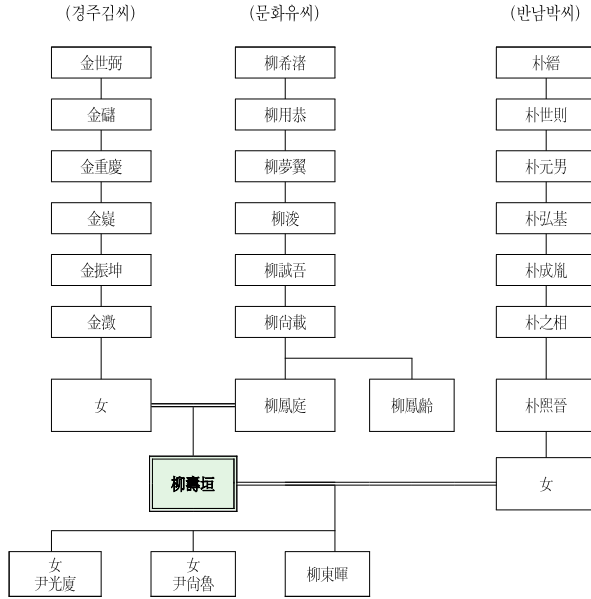
79)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문헌편 240~246면.

80) 정만조(2014a), 24~31면.

81) 정만조(2014a), 28면.

82) 김세필의 아버지는 충주목사 金薰이며, 어머니는 진천송씨로 군수 宋嚳의 딸이고, 부인은 고성이씨로 부사 李鐸의 딸이다. 자녀는 3남 3녀로, 아들은 礪, 瞿, 礪이며, 사위는 生員 楊誼, 萬戶 崔弼臣, 生員 李贊이다. 이 중 최필신의 딸은 유몽정의 부인이자 유약의 어머니로 일찍이 유수원 집안과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세필은 중종 때 전라도관찰사, 대사헌, 이조참관을 지냈으며, 1519년 기묘사화 때 충주에 유배된 후 후진을 양성하였다. 충주 八峰書院, 음성 知川書院에 향사되어 있다. 묘소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데, 현재 '경주김씨 김세필 묘역 및 신도비' 명칭으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는 益山郡守를 역임한 金嶽(1572~1642)<sup>84</sup>이다.



〈도8〉 柳壽垣 家系圖

김징의 첫째 부인은 淸州韓氏 韓碩元의 딸이며, 둘째 부인은 高靈朴氏 承旨 朴相潤의 딸이다. 청주한씨에게 1녀, 고령박씨에게 2남 2녀를 두었는데, 청주한씨 소생의 딸이 유수원의 어머니 경주김씨(1670~1744)로 보여진다. 족보상에 김징의 묘는 大冶洞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sup>85</sup> 또한 김징의 사위는 유수원의 아버지인 柳鳳庭과 正郎 鄭槩의

83) 『慶州金氏世譜』 卷之三(1882년), 31면.

84) 호는 南谷, 증조부는 十淸軒 金世弼, 조부는 金礎, 아버지는 金重慶이다. 栗谷·牛溪의 문인으로 인조반정 이후 광흥주부, 음죽현감, 창평현령, 곡성현령, 익산군수를 역임하였다. 묘소는 용인시 죽전동 김세필 묘역에 같이 있다.

아버지인 연일정씨 鄭驪河이다.<sup>86)</sup>

유수원의 처가는 반남박씨로 妻父는 承政院 承旨를 지낸 雲浦 朴熙  
晉(1657~1727)이다. 박희진의 묘는 安城 北佐村(현 경기 안성시 보개  
면 북좌리)에 소재한다. 안성, 음죽, 충주 유수원의 처가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중심으로 한 농암의 활동범위도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저의 신원입니다. 아버지는 柳鳳廷이고 할아버지는 柳尙載인데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金召史이고 외할아버지는 金激으로 모두 돌  
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忠州에서 낳았고 저는 부모님을 따라 서울  
에서 자라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저는 申致雲, 朴師緝 등과 사귀고 결탁  
하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관직에 쓰이지 못하고 막혀 있는 처지는 신치  
운과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調劑 탕평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위로는 나라를 비방하고 아래로는 조계 탕평에 관여한 여러  
신하를 욕하면서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몰래 쌓아 갔습니다. 매번 서로  
마주할 때마다 흉악하고 폐악스러운 말을 내뱉었는데 마치 金一鏡, 朴弼  
夢이 말하듯 하였고 때로는 김일경, 박필몽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으  
며, 저는 그들과 하지 않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역적에 대  
해서 그들이 다만 흉악한 역적임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로  
峻論의 당론을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원망하기까지 하였고, 나라를 원망  
하는 마음으로 망측하고 폐악스러운 말을 항상 입에 올리기까지 하였습  
니다. 대역부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실하다고 遲晩합니다.<sup>87)</sup>

85) 현재 김징의 묘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339-9번지에 소재한다. 원래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에 있었으나 2004년에 이장하였다.(김징의 12세손 김원명씨를 통해 확  
인함.)

86) 『慶州金氏世譜』 卷之三(1882년), 32면.

87) 『推案及鞠案』 21권, 을해년(1755) 5월, 乙亥五月逆賊沈鼎衍等推案 3. “矣身根脚段  
父鳳廷 父矣父尙載, 並只故. 母金召史, 母矣父激, 並只故白良乎. 父母以胎生於忠  
州, 隨父母長養入籍於京中是白乎脉. 矣身與致雲師緝等交結親密, 其所沈滯與致雲  
無異者. 此專由於調劑之致, 故上訕于上, 下辱調劑諸臣, 陰縮怨國之心, 每於相對時,

유수원은 1755년(영조 31) 5월 24일 최후 진술에서 신치운, 박사즙 등이 관직에 쓰이지 못했던 것은 영조의 조제 탕평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영조의 탕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대역부도죄를 시인했고,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그의 아들들인 柳東暉, 柳謙錫, 柳益錫은 絞刑에 처해졌다.<sup>88)</sup>

유수원이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된 이유는 대표적 소론 문벌 가문의 사람으로 결국 심정연의 시권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또한 유수원은 유봉휘의 從姪이라는 점, 신치운과 沈錮, 그리고 역모로 처형된 증조부(유성오) 처가(반남박씨)의 후손인 朴師緝과의 친분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sup>89)</sup> 경종을 지지한 유봉휘는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한 노론에 반대하는 소론 측의 선봉에 섰는데 신임옥사의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유배된 뒤 세상을 떠났다. 유수원은 바로 그러한 유봉휘의 종질이었다.

유수원은 처음 진술에서 5촌 당숙인 유봉휘와의 친밀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유봉휘의 상소를 베낀 적이 없고, 역적 유봉휘가 1713년경 전라도 관찰사였을 때, 어머니가 병이 나서 그에게 찬거리를 구했으나 한 꾸러미의 조기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sup>90)</sup>

이후 1744년(영조 20)에 유수원은 모친상을 당하고, 1754년(영조 30) 윤4월에 유수원이 을해옥사의 역적으로 몰리기 1년 전에 영조는 假注書

---

多發凶言悖說如鏡夢之爲，時或有加於鏡夢，而 矣身輒與之爛漫酬酌。盖矣身等於諸賊，非徒不以凶賊知之，實以黨峻之心至於怨國，以怨國之心至於常道罔測之悖說是白置。大逆不道的實遲晚的只是白乎事。”

88) 조윤선(2008), 319면. 유수원이 부인 나주박씨는 남편 따라 自刎하였고, 손자 손녀는 거제, 남해 등으로 종으로 갔다.

89) 沈錮은 영조 초에 영의정을 지낸 沈壽賢의 아들이며, 참판까지 벼슬하였고, 申致雲은 申翊聖의 현손으로 승지를 지냈다. 朴師緝은 선조의 國舅 朴應順의 6대손이자 전 주부윤을 지낸 朴潢의 아들이다.

90) 『推案及鞠案』 21권, 을해년(1755), 逆賊沈鼎衍等推案 3, 5월 24일 유수원 1차 진술.



柳東賓(유수원의 9촌 조카, 李匡師의 처남)에게 조정에 벼슬한 가까운 친척이 누구나 물었다가 弼善 柳壽垣이라 하니까 영조는 그의 재능을 아까워 했다.<sup>91)</sup> 이를 통해 이광사의 처가인 모산촌 출신 유종원의 아들 유동빈과 유수원의 교류가 충분히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농암 유수원이 모산촌에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선대 가문의 중심지였기에 왕래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그와 가까운 반남박씨 박사즙과 평산신씨 신치운 등이 선대부터 戚聯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수원의 『迂書』는 조선의 중상주의 경제학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유수원은 소론 명문가 출신이지만, 당대 조선을 수술할 사회, 경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여겨 富國과 安民을 위한 개혁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土農工商의 신분 질서 및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 개혁, 상업적 농업 및 상공업 발전을 꾀하는 경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기저는 그를 배출한 호남 모산촌의 문화유씨 가문과도 일정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수원의 11대조 유관 이래 훈구세력으로 자리매김하다 6대조 유용공 대에 이르러 모산촌에 정착하면서 호남의 己卯士林세력과 연계된 이후, 고조인 사교당 유준의 실천적인 강화 및 창의 활동, 할아버지 유상재와 종조부 유상운, 당숙인 유봉휘 등의 경세제민적 관직 활동 등은 실학적 배태를 가진 가문의 성격도 충분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91) 『承政院日記』 영조 30년 6월 27일 을해.

### 3) 원교 이광사 가문과 모산촌

나주괘서사건으로 가장 타격을 받았던 모산촌 문화유씨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산촌에 처가를 둔 원교 이광사와 아들 이공익, 이영익 등과의 연계성이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柳昌五의 아들 柳尙轉과 손자 柳鳳泰는 나주에 유배와 있는 윤지의 집에 왕래하면서 나주괘서사건과 연루되었고 결국 복주되었다.<sup>92)</sup> 이광사는 유봉태의 三從姪 사위이다. 유상전·유봉태 부자는 사료상 나주괘서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모산촌 문화유씨 인물들로 확인된다. 유상전은 약재 유상운과 4촌지간이고, 유봉태는 만암 유봉휘와 6촌지간의 가까운 혈족이었다. 사교당 유준의 큰 아들인 유성오가 유속에서 入系되고, 유성오의 후손이 주로 서울 인근 양천에 거처한 것에 비해, 유준의 나머지 아들인 신오, 창오, 형오의 후손들은 모산촌에 주로 세거하였다. 유신오는 한산이씨 李光源의 딸과 사이에서 尙輔, 得輔, 常輅, 尙暈의 네 아들과 사위로 趙晟漢, 송시열의 아들인 宋基泰를 두었다. 이 중 常輅는 숙부인 유형오에게 入系된다. 유신오의 長孫이자 이광사의 처 할아버지인 유봉장은 옥과현감을 역임하였고, 유상운과 함께 모산촌의 영팔정 중수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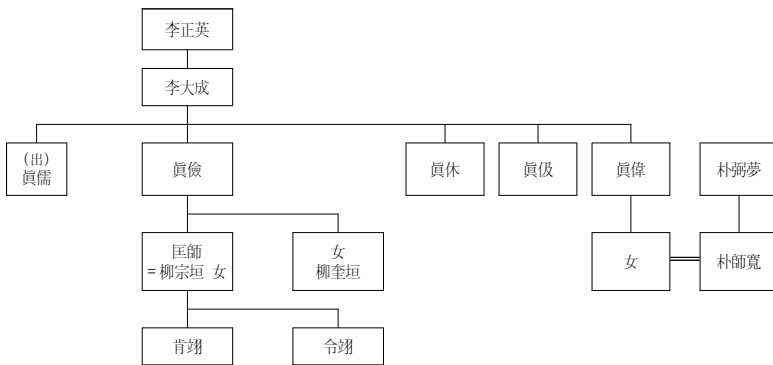
유창오는 4남 3녀를 두는데 아들은 尙範, 尙連, 尙鍾, 尙轉이고, 사위는 李晉命, 南從萬, 申齊이다. 유창오의 4째 아들인 柳尙轉(1676~1757)은 副司果를 역임하였고, 1755년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될 당시의 나이는 79세였다. 유상전은 광산김씨 金自光의 딸과의 사이에서 鳳燁, 鳳衡, 鳳岱, 鳳泰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柳鳳泰(1693~1755)가 나주괘서사건

92) 『承政院日記』 영조 31년 3월 7일 경진, “羅州·茅山, 有柳鳳泰者, 鳳輝之孽六寸也 頻數往來於志家, 柳鋌爲羅州牧使時, 數以酒饋問之, 間或往見矣上曰, 爲汝之相親, 而亦可任書籠者耶?, 象漢曰, 稱以鳳輝之六寸者, 抑有妙理矣.”

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로 족보상에는 進士로 확인되며, 추국을 받는 중에 곤장을 맞다가 죽는다.<sup>93)</sup>

이처럼 유신오의 증손인 유종원(이광사의 처부) 가계와 유창오의 후손인 유상전·유봉태 가계가 나주괘서사건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風飛雹散된 모산촌 문화유씨 집안은 쇠퇴의 길로 갔다고 할 수 있겠다.

원교 이광사는 伯父 李眞儒(1669~1730)가 나주괘서사건으로 처벌될 때 이에 연루되어 함경도 會寧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1762년(영조 38) 전라도 완도 신지도로 이배되었고, 신지도에서 16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광사의 전주이씨 집안은 峻少 계열의 선봉에서 노론과 대결하였는데, 백부 이진유는 辛壬獄事 당시 司諫으로 경종을 보호하고 노론 4대신을 숙청하는데 깊이 관여하였고, 아버지 李眞儉도 예조판서로 노론 축출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1725년 영조의 즉위와 노론의 집권으로 인해, 부친은 강진으로 백부는 추자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 무신란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다가 중 옥중에서 옥사하였다.



〈도9〉 圓嶠 李匡師 家系圖

93)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68면; 『闡義昭鑑』 4권, 乙亥年(1755, 영조 31).

이광사는 이러한 峻少 가문 출신으로 출사가 차단되었기에 강화도에 있는 鄭齊斗에 양명학을,<sup>94)</sup> 尹淳에게는 글씨를 배우는데 몰입하였다. 그는 윤순의 영향을 받아 왕희지체를 표방하는 玉洞 李滌가 일으킨 東國眞體를 완성하며 학문을 익히다가 1755년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가문 전체가 과란을 겪게 된다. 역모의 주동자인 尹志의 문서 상자에서 이진유·이진겸·이광사 등의 서찰이 발견되면서부터 역모의 일족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광사는 윤지와 상통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광사는 1733년(영조 9) 모산촌의 柳宗垣(1690~1730)의 사위가 된다. 유종원은 앞서 살펴 본 『영괄정상량문』을 쓴 柳鳳長의 아들이자 유신오의 손자로 모산촌 문화유씨의 주요 인물이었다. <도9>에서 보듯이 이진겸의 사위이자 이광사의 妹弟인 柳奎垣(1711~1765)은 약재 유상운의 손자이자, 유봉협의 아들로 확인된다. 이광사의 증조인 西谷 李正英(1616~1686)은 유성오의 묘비를 쓰는데, 이처럼 일찍부터 두 집안간의 교류와 연혼이 깊이 있게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광사의 숙부인 이진위의 사위는 무신란에 복주된 무장현감 박필몽의 아들인 박사관이다. 이광사와는 사촌 매제가 되는데 이처럼 문화유씨, 전주이씨, 반남박씨 峻少 계열의 연혼과 연계성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사는 1762년(영조 38) 처가인 모산촌에서 가까운 薪智島에 移配한 후 이 곳에서 16년간을 살다 생을 마친다.<sup>95)</sup> 이 시기 원교 자신은 모

94) 정제두의 강화학파는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는 實學으로 양명학을 바탕으로 주자학적 인식론을 재수용하거나 한학 가운데서 실증적 학풍을 도입하였다. 특히, 이광사는 ‘存實理’를 주창하였다.

95) 원교는 신지도로 옮긴 후 호를 壽北이라 지칭하고 인근 사람들에게 학문과 글씨를 가르쳤다. 현재 신지면 금곡리에는 謫所였던 황치곤의 집이 남아 있다.

산촌에는 오고 가지 못했지만, 아들 이공익과 이영익은 한양과 신지도를 오가면서 외가인 모산촌을 왕래하였다. 『圓嶠集』에는 이광사 본인보다 6살 연배이자 가까운 知人인 水村 權宰(1699~1772)가 1772년(영조 48) 3월에 신지도를 찾아 왔고, 다시 겨울에 이광사를 찾아 남하하다가 모산촌에 이르러 병이 나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도 확인된다.<sup>96)</sup> 이처럼 나주 패서사건으로 모산촌이 피폐해진 상황에서도 원교와 모산촌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광사의 아들인 연려실 이공익(1736~1806), 信齋 李尙翊(1738~1780)은 신지도를 오가며 원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이공익은 아버지 원교의 을해옥사 피화로 인해 일찌기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직 학문에만 힘썼다. 특히 국사에 비상한 관심과 취미를 갖고 史書を 섭렵하였는데,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練藜室記述』이다. 그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연려실기술』은 개인이 남긴 조선 시대 최고의 역사 기록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공익은 ‘述而不作(서술해서 전할 뿐 스스로 창작하지 않음)’ 정신의 객관성을, 實事의 역사서를 강조하였다.<sup>97)</sup> 그는 객관성, 공정성, 체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집, 정사, 야사, 족보, 금석문, 일기 등 400여 종의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博學·實證의 실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영익은 그의 문집 『信齋集』을 통해 일찌기 부친 이광사에게 학문과 서예를 모두 배웠고, 10여 세에 이미 놀랄 만큼 글씨를 잘 썼다는 사실

96) 『圓嶠集』選卷第六, 祭文 權大耋, “祭權在之宰文 余有知心友 水村權翁以大耋比六歲歲訪我于窮溟至今歲壬辰三月矣 是冬復爲見我南下至錦南茅山病十月庚寅告復十一月戊戌赴至壽北 北臨慟哭越四日味爽復經而哭摛文須俛 使子尙翊設酒設讀于靈座前曰……”

97) 신병주(2012).

을 확인된다. 그는 부친을 따라 부령으로 신지도로 유배길을 동행하며 원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이영익은 16세(1752년)에 하곡 정제두의 손녀와 혼인하였고 강화학파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신재는 정제두의 복건에 銘文을 짓고, 정제두가 살던 집벽에 題하여 정제두의 학문과 정신을 기렸다. 이처럼, 이영익은 아버지 이광사를 통해 학문을 전수 받았고 이후 이충익과 토론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영익은 圓嶠體의 第一 계승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예에 대한 해박한 이론으로 원교가 지은 『書訣』을 代述할 정도였다. 신지도에서 원교가 쓴 『千金帖』에 이영익이 쓴 칠언절구가 실려 있어 신지도에서 부친과 함께 서법 연마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98)</sup>

신재는 18세(1755년)에 나주괘서사건으로 부친이 부령으로 유배가자 배종하였고, 이후 3년 뒤인 1758년(영조 34)에는 다시 부령으로 가서 부친을 모시고 4년간 살다가 1761년에 돌아 왔다. 1762년 이광사가 신지도로 이배되자 부친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1765년 7월까지 시종하였고, 이후 1767년부터 1772년까지 6년간 신지도에서 부친을 봉양하였다. 이처럼 강화도·한양과 부령·신지도의 유배지를 오가며 부친을 시종하면서 벼슬을 단념하고 일생을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영익은 외증조부 柳鳳長의 墓誌, 외조부인 柳宗垣의 行狀, 외조모 閔氏의 祭文 등을 지었는데 모산촌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 주목된다. 이영익은 35세(1772, 영조 48년) 5월에 형 이궁익이 외가인 모산촌으로 거처를 옮기자 시를 지어 보내는데, 어머니의 고향이자 두 형제의 생장지로서 추억이 서려있는 모산촌을 그리고 있다. 특히 모산촌 일대의 別味인 德津의 魚膾, 靈巖의 石花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99)</sup>

---

98) 이승연(2017), 282~283면.

유봉장 묘지에는 고향 모산촌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從祖 叔父 유상운의 천거로 活人署別提, 義禁府事, 玉果縣監에 이르렀다는<sup>100)</sup> 기록이 있고, 유종원 행장에는 1723년(경종 3) 慶基殿 參奉, 1724년(경종 4) 貞陵 參奉을 지냈으나 병이 들어 41세(1730, 영조6년)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는<sup>101)</sup> 기록이 확인된다.

외조모 민씨의 제문에서는 민씨가 모산촌 인근 갈곡마을의 驪興閔氏 進士 閔應龍(1656~1701)<sup>102)</sup>의 딸로 태어났고,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東賓(1720~1765)은 문과에 급제하여 注書 등을 벼슬을 하다 45세에 죽고, 딸은 원교의 부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영익의 어머니 문화유씨는 아버지 유종원이 죽고 3년 후인 1733년(영조 7)에 원교 이광사와 혼인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이미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755년(영조 31) 을해옥사로 이광사가 투옥되자 문화유씨는 자결하고 만다. 이로 인해 이궁익과 이영익은 이후 외조모인 여흥민씨(1690~1761)의 손에 자랐기에<sup>103)</sup> 그만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고향인 모산촌

99) 『信齋集』 冊一, 律詩, 壬辰五月 家兄捲家寓茅山 遙呈十六絕句 “雨夜孤齋集萬思 年年增益是分離 愁眠又被喧喧撼 可道蛙鳴不爲私 未有盃樽可釋悲 瘦妻呻病妹啼飢 滄溟臥念行人處 正是茅山憶我時 …… 曾是吾慈生長鄉 手栽朱果出林長 偶然經過猶堪涕 况復流離落此方 精靈千里故山歸 四十年來百劫移 唯有籬遭知舊宅 並無村老記當時 德津魚膾雪紛羅 更有靈巖大石花 春秋時薦須多感 曾說鄉山此味嘉”

100) 『信齋集』 冊二, 玉果縣監柳公墓誌銘, “從祖叔父相國忠簡公尙運嘗戾鄉見公大奇之忠簡之鄉族多獨舉公除青巖察訪曰此官於此人薄爲便養耳公母延安金夫人在也 然人猶疑內舉及公移京職見俊偉通達爭願交歡陞六品拜活人署別提遷義禁府事出監玉果縣縣近鄉輦母之官四載棄歸無一携裝而諸奴婢私載什器囊糧之具犂牛馬以從或言宜戢以避謗公笑曰我之齟齬寡欲人皆知 ……”

101) 『信齋集』 冊二, 外王父貞陵參奉柳公行狀.

102) 민응룡은 都摠府副摠管 閔昌胤의 증손, 閔行源의 아들로 1682년(숙종 8) 진사에 합격하였다. 세거지는 현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원갈곡 마을로 현재 여흥민씨 문중의 재실인 景慕齋가 있다.

103) 『信齋集』 冊二, 祭外王母閔淑人文. 이광사는 1736년 아들 이궁익이 태어날 즈음

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궁익과 이영익의 외조부인 유종원은 유준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1689년 유상운이 지은 『詠八亭上樛文』를 쓴 柳鳳長이다. 유종원은 농암 유수원의 8촌 형으로 모산촌에 전장 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유종원의 8촌이자 유봉휘의 조카인 柳奎垣은 이광사와 妹弟지간으로 확인된다.

이영익은 1771년(영조 47) 무렵에 외가인 모산촌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을해옥사 이후 소론의 근거지인 모산촌이 기존의 법도 있는 풍속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혼란스러워졌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04)</sup>

이처럼 유상운과 유봉휘 대 호남 소론의 중심지였던 모산촌은 영조대에 들어 1755년 나주괘서사건으로 결정적은 타격을 입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주괘서사건은 모산촌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교당 유준에 이어 약재 유상운과 만암 유봉휘 시기에 호남 소론의 중심 근거지로서 위상은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후손들의 분비재 강학활동이나 죽봉사우에 대한 제향은 그 명맥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장모인 여흥민씨를 서울로 모셔 동거하였다.

104) 『信齋集』 冊二, 外王父貞陵參奉柳公行狀 “…… 近歲 令翊行過茅山訪舊人如昔聞殊過之咸曰此鄉多士族我人見聞未有如此公此公所謂不可得以親疏者又曰此鄉號俗儉此公在時人憚爲惡且曰俗益壞未知使公在能齊之如伊時否又咸曰此鄉多口不喜全人美公之道亦非悅每人者至今輿誦無異辭則公可知也人之聲譽播塗人走卒之口易厭親戚故舊之心難令行於廊廟朝廷之上易教從於閭里鄉黨之間難取歡於當時易而遭慕於身沒十百年難非實德在人能若是乎雖言之美多隱不見可以少慙矣凡爲府君後人者尙庶幾繼茲懿而不失多積之報協如龜筮勉之哉正字名東實內弟名廷圭我大人李匡師閔淑人權葬于衿川縣箕潛里副提學墓下未克歸附龍集辛卯十月干支外孫李令翊謹識”



#### 4. 맺음말

호남 소론의 근거지로서의 모산촌에 대한 기초작업은 또다른 호남 실학의 공간적 범위를 찾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보학적 접근의 한계, 사료 미비에 대한 실체규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중상주의 실학의 선구인 농암 유수원을 배출한 토대가 된 영암 모산촌은 문화유씨 중시조인 하정 유관으로 비롯되었다. 모산촌은 유관이 전라도 관찰사 재직시에 아들 맹문에게 지명한 땅으로, 유맹문의 현손인 유용공과 유용강이 입향하면서 문화유씨 집성촌으로 성장하였다. 유용공과 유용강은 하동정씨 정효손의 딸과 경주이씨 이해의 딸과 혼인하며 모산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유용공의 둘째 아들인 유몽익은 유수원의 5대조이다. 그는 인근 영암 구림마을의 함양박씨 박성건의 증손녀, 여흥민씨 민덕귀의 딸 등과 혼인하였고, 아들은 유숙과 유준을 두었다. 유용공의 넷째 아들 유몽정은 고부군수를 역임하였는데 나세찬의 문인이자 사위이기도 하였다. 유몽정은 1589년 정여립의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옥사되고 집안 전체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몽익의 큰 아들 유숙은 명문가인 반남박씨 박응인의 사위가 되고, 동생 유준의 큰 아들인 유성오를 양자로 들이고, 유성오 역시 반남박씨 박동량의 딸과 혼인하고 중앙으로 진출하며 명문가 토대를 마련하면서 가문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기축옥사와 임진왜란으로 어지러워진 모산촌을 새롭게 기틀을 다진 사람은 사교당 유준이었다. 그는 삼종형인 유공신과 분비재를 만들어 향중자제를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士林 宗匠으로의 정

신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고부의 선비인 권극중은 그를 천거하였고, 권극중의 문인으로 고부 달천에 거주하는 유빈(유준의 후손)을 두기도 하였다. 유준이 죽자 그를 배향하기 위해 분비재 뒤편에 죽봉사가 건립되었는데, 훗날 손자 유상운도 이 곳에 추배되면서 창계서원 등과 함께 나주·영암 지역의 대표적인 소론계열의 서원으로 구심점을 수행하였다.

모산촌 문화유씨 가문의 최고 전성기는 단연 약재 유상운과 유상운의 아들 만암 유봉휘 대로 볼 수 있겠다. 유상운은 유년시절과 만년을 모산촌에서 보내는데 조부인 유준의 유지를 받들어 모산촌을 중흥시킨 인물이었다. 특히 1692년 영팔정을 중건을 통해 호남 소론의 거점으로 모산촌을 성장시켰다. 현재 영팔정에는 상량문, 팔영시 등의 현판 9개가 남아 있고, 명필로 알려진 유상운이 직접 쓴 비석 등의 금석문이 모산촌 인근에서 8개나 확인이 되었다.

2대에 걸친 부자 정승으로 유명한 아들 유봉휘는 1712년경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713년 모산촌 영팔정을 오고 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상운과 유봉휘는 국가의 稅制, 身分制 등의 개혁 등을 주창한 내용을 통해 경제학적 특장도 확인할 있어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 모산촌 문화유씨는 특히, 22대 유상운, 23대 유봉휘, 24대 유수원 대인 숙종, 경종 연간을 정점으로 문과·사마에 급제하고 현달한 후손들이 많아 이 시기가 모산촌 문화유씨 가문의 최고 전성기이자, 모산촌이 호남 소론의 주근거지로써 역할을 수행하였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은 노론에게 있어 소론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好機였다. 나주·영암 지역의 주요 소론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모산촌의 문화유씨, 엄길리 일대의 반남박씨, 회진의 나주임씨 등을 들 수 있다. 나주목사를 역임한 박동열의 반남박씨는 영암 엄길리에 박호, 박세모 부자

의 묘도문자를 유상운이 썼고, 특히 박동열의 둘째 아들인 박황(박동언에게 출계)의 후손이 나주괘서사건과 많이 연루되어 복주되었다. 박필현의 종질인 박사집이 대표적이다. 또한 창계 임영의 나주임씨 가문은 임영의 종중손인 임징원이 나주괘서사건의 주모자 윤지와 모산촌 문화유씨인 유상전, 유봉태 부자와 연계되어 복주되었다. 사교당 유준 이래 유상운, 유봉휘의 부자 정승을 배출한 호남 소론의 주 근거지였던 모산촌이 뿌리채 흔들려 풍비박산이 났다.

또한 이러한 을해옥사 과정 속에서 유상운의 종손자인 농암 유수원은 처형되었고, 모산촌을 처가로 둔 원교 이광사는 연좌되어 유배길에 올라 신지도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원교의 아들인 연려실 이공익과 신재이영익도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실증적인 학문에 뜻을 두었는데 이들의 외가인 모산촌은 또 다른 학적 기반의 공간으로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유수원은 할아버지 유상재, 숙부 유봉령이 모산촌을 배경으로 생몰, 성장, 관직생활을 영위한 것이나 당숙인 유봉휘가 전라도관찰사 시절에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수원의 모산촌 왕래에 대한 개연성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농암의 고조인 사교당 유준의 강학 및 창의 활동, 종조부 유상운, 당숙 유봉휘 등의 경세제민적 활동 등은 실학적 배태를 가진 가문의 성격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불명확했던 농암의 외가에 대해서도 외조부 김징이 충주에 세거하는 김세필(김세필 - 김저 - 김중경 - 김의 - 김진곤 - 김징)의 5대손임이 확인되었다. 처가 역시 같은 소론계로 처부는 안성 출신 반남박씨 박희진이다.

원교는 1755년 을해옥사로 부령으로 유배를 갔다 1762년 신지도로 이배되면서 처가인 모산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한 원교는 처부인 유종원과 매제인 유규원(유수원의 4촌)이 8촌지간으로 모산촌을 근거로 곱혼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아들 이

궁익과 이영익은 자연스럽게 신지도로 오가며 외가인 모산촌 왕래가 잦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영익의 『신재집』에는 외조부 정릉참봉 유중원, 외증조부 옥과현감 유봉장, 외조모 여흥민씨 등의 행장, 묘지, 제문 등이 그나마 남아 있어 당대의 모산촌의 정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는 외가인 모산촌이 두 형제의 생장지로서의 추억, 풍광, 음식 등의 내용과 특히, 을해옥사 이후 모산촌이 기존의 법도있는 풍속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혼란스러웠음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호남 소론의 근거지로서, 호남실학의 또다른 산실로서의 모산촌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약재 유상운, 만암 유봉휘, 농암 유수원, 원교 이광사, 연려실 이궁익, 신재 이영익 등 모산촌을 근거로 한 인물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향후 더욱 궁구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國朝寶鑑』.
- 『國朝人物考』.
- 『己丑錄』.
- 『頤齋亂藁』.
- 『可笑堂集』.
- 『南溪集』.
- 『樂全堂集』.
- 『芝峯類說』.
- 『圓嶠集』.
- 『燃藜室記述』.
- 『信齋集』.
- 『靑霞集文集』

- 『霽峯集』.
- 『象村稿』.
- 『約齋集』.
- 『迂書』.
- 『磻溪隨錄』.
- 『推案及鞠案』.
- 『可笑堂集』.
- 『湖南丙子倡義錄』.
- 『萬姓大同譜』.
- 『韓國系行譜』.
- 『慶州金氏世譜』 卷之三(1882).
- 『文化柳氏夏亭公派譜』(2005).
- 영암향교(2018), 『靈巖郡氏族入鄕世居史』.
- 경주김씨상촌공파중회(2009), 『國譯 知川書院誌』,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신엽(2001), 『조선후기 소론 연구』, 봉영.
- 고영진(2017),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영남학』 60.
- 고수연(2017), 「戊申逆獄推案에 기록된 戊申亂 叛亂軍의 성격」, 『역사와 담론』 82.
- 김경옥(1991), 「朝鮮後期 靈岩土族과 書院 - 全州崔氏家門의 성장과 鹿洞書院의 建立事例」, 『호남문화연구』 20.
- 김문택(2007),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 김동준(2016), 「富寧 流配期 李匡師 漢詩의 내면과 眞情의 지평」, 『한국한시연구』13.
- 김승대(2017a), 「전북지역 호남실학의 발굴과 과제」, 『문·사·철을 통해 본 황윤석의 학문세계』, 이재연구소.
- \_\_\_\_\_ (2017b), 「홍계희 경세론의 재지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 \_\_\_\_\_ (2017c), 「반계 유형원의 가계 분석」,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 김학수, 권오정(2003), 「나주 나주임씨 창계가문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67 -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명희(2001), 「문중문헌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 - 암 구림 함양박씨 오한공파 문헌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 박용만(2004), 「강화학파의 연구시에 관한 고찰」, 『한국한시연구』 12.
- 신병주(2012), 「역사: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 술이부작의 정신, 역사서의 모범 -」, 『선

비문화』 22, 남명학연구원.

- 신장섭(2007), 「『東國樂府』를 통한 圓嶠과 信齋의 역사인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2.
- 오경택(2011), 『조선중기 전주지역 士族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 오수열(2011), 「友石 柳赫의 생애와 정치이념」, 『서석사회과학논총』 4.
- 유계식(1990), 「전북유학의 전개」,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윤미길(1991), 「청하 권극중의 시세계」, 『한국도교와 도가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회.
- 이남옥(2018), 「하곡 정제두의 인적네트워크 - 혼인관계와 墓道文字 찬자를 중심으로 -」, 『양명학』 49.
- 이승연(2017), 「동국진체의 호남 서맥 형성과 전개 - 남도서맥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87.
- 이연순(2012), 「滄溪 林泳의 '日錄'에 나타난 독서 기록의 특징」, 『한문학논집』 35.
- 이영춘(2017), 「慶州金氏 桑村公派의 族譜와 門閥의 形成」, 『한국계행연구』 7.
- 이정철(2016), 「정개청 옥사와 그 배경」, 『역사학연구』 61.
- 임형택(2015), 「호남의 학문전통과 실학」, 『반계 유형원과 호남실학』, 전라북도.
- \_\_\_\_\_(2003),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대동문화연구』 42.
- 정만조(2014a), 「龔巖의 생애와 정치개혁론」, 『농암 유수원 연구』, 실시학사.
- \_\_\_\_\_(2014b), 「한국 실학연구와 한우근」,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 조운선(2008), 「농암 유수원의 생애와 사법제도 개혁론」, 『한국인물사연구』 10.
- \_\_\_\_\_(2009),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
- 한영국(1981), 「국역 『우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 한영우(2007),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 지식산업사.

## The Study on the Mosanchon as Base in Honam-Soron

Kim seung-dae\*

The thesis is the study on the Mosanchon as the base in Honam-Soron. Also, the Mosanchon is regarded as the cradle of Honam Silhak. Now the Mosanchon is located in Yeongam, Jeollanam-do.

The Mosanchon produced a representative Silhak scholar, Yu Su Won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His ancestor is a family of Munhwa Yu and the Yu Gwan, a provincial governor in Jeolla-do. Yu Yong gong and Yu Yong gang returned to their native place and made the Mosanchon the gathering of Munhwa Yu. It was Yu Jun that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Mosanchon. He founded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nbijae.

Afterward, the Mosanchon turned out two ministers called Jeongseung, who were Yu Sang un and Yu Bong hwi, respectively in Sukjong and Gyeongjong of Joseon. They were a father and son. However, in 1755 Eulhaeoksa(乙亥獄事) stroke the Mosanchon. It was counterattack of Soron against the ruling power, Noron and occurred in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in Naju, Jeolla-do. Nevertheless, Soron was considered to commit treason against the Joseon Dynasty and completely annihilated.

The Mosanchon is also wife's family of Lee Gwang sa who was exiled to Sinjido and mother's parents' home of Lee Geung ik and Lee Young ik.

From now on, it is expected to be researched in various aspects on the Mosanchon as the base in Honam-Soron and the cradle of Honam Silhak.

### Key words

Mosanchon, Honam Silhak, Yu Su Won, Yu Sang un

논문 접수일 : 2018.11.31. 심사 완료일 : 2018.12.07. 게재 확정일 : 2018.12.12.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ksd5000@hanmail.net